

통합치료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부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총 무 : 노남숙(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최광현(한세대학교) 김은연(명지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국제교류위원회 : 권수진(Maryville University)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윤 리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송민애(연세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유경훈(숭실대학교) 정은정(명지대학교) 최정현(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문소영(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박은선(명지대학교) 양심영(송의여자대학교) 조민지(평택대학교)

간 사 : 정혜전 변지혜

감 사 : 김수지(이화여자대학교) 최명선(명지대학교)

〈차 례〉

-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윤보영 · 정은정5
-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박지영 · 문소영31
-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김문정 · 유금란51
-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안명란 · 홍혜영75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101

<별첨 2> 투고규정 / 104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105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112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윤보영* · 정은정**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 공격성,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 대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및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총 80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은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스마트폰 중독과 모두 부적 상관,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은 각각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렇듯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며 이론적 배경을 통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정서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은 각각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관계적 공격성만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논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여 마무리 하였다.

핵심어 : 정서조절능력,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스마트폰 중독

* 본 연구는 윤보영(2016)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정은정(914janet@hanmail.net)

■ 게재 신청일 : 2016년 6월 15일 ■ 최종 수정일 : 2016년 8월 11일 ■ 게재 확정일 : 2016년 8월 14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디지털 문명의 발전은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에 인터넷이 결합된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면서 생활의 편리함,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시공간 제약의 극복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출시 이후 단 시간 만에 기기의 확장성과 즉시성, 그리고 휴대성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년 4월을 기준으로 4천만 명을 넘었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러한 대중화는 우리사회가 ‘스마트 사회’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 이면에 각종 부작용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사용가능 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에서 이제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황승일, 2012). 스마트폰 중독이란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고 현실세계보다 가상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며,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이나 초조하고 더 많은 사용을 해야만 만족을 얻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이민석,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학업의 방해, 수면 패턴의 변화로 성장 저하, 가족 간에 대화단절 문제, 청소년 사이버 범죄 및 성폭력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정명진, 2014).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온라인에 의한 관계에 집착을 하다 보니 실제 대인관계 형성에 큰 문제점을 갖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통화하기 대신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콘텐츠 중 하나인 SNS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도 늘어나 대인관계능력이나 대화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의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조수진, 2012). 스마트폰을 일상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중독 상태에 이른 청소년은 계속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10~19세)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5.5%로, 성인보다 약 2.9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중학생이 29.3%, 고등학생 23.6%, 대학생 18.1%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인터넷 중독율이 지난 2005년 12.6%에서 2012년 7.2%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와 대조적이다. 또한 박지선(2012)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청소년 중·고등학

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학생 집단보다 청소년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영미(2012), 이민석(2011)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중·고등학생일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그 자체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 게임, 쇼핑, 채팅, 도박과 같은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여 잘못되게 또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Oktan, 2011). 개인이 그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스마트폰 중독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정서를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ktan, 2011; Shapira, Goldsmith, Keck, Khosla, & McElroy, 2000; Weinstein & Lejoyeux, 2010). 스마트폰 중독의 치료 및 개입에 대한 연구들(Oktan, 2011; Shapira et al., 2000; Weinstein & Lejoyeux, 2010; Young, 1996)에서 정서조절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을 포함한다. 자아 속에서의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은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정서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과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갖게 되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문용린, 1996,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정서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서 타인을 동화시키기도 한다(Salovey & Mayer, 1990). 국내에 정서조절 능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그 수가 그리 많이 않아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서와 관련된 변인과 스마트폰 중독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성 수준이 높고(엄민경, 2013), 인지적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전략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한수진, 2015), 전미아(2014)는 스마트폰 중독과 정서조절 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자극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시·공간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미경(2015)의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을 기르는 것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서 오는 공격성의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정서조절능력이 또래 괴롭힘 등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Schwartz & Proctor, 2000) 공격적인 행동은 일부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데 기인한다(박성연, 강지훈, 2005). 청소년의 공격성은 실제 생활하는 오프라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환경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심각

하게 발생하고 있다. 흔히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격적인 모습은 악성댓글이나 욕설, 헐박, 저주, 유언비어 유포, 사이버 성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김현정, 2014).

공격성의 형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되어진다. 외현적 공격성이란 남자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때리기, 밀치기, 욕하기 등의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을 말하며, 관계적 공격성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는 방법으로써, 관계를 조작하고 상대방을 속상하게 하여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이룬다(Kolbert et al., 2010). 즉, 또래관계 혹은 소속감과 같은 감정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에 초점을 둔다(Crick & Grotpeter, 1995).

최근에는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와 더불어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 및 공격성의 하위변인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져(김지현, 박정자, 2006; 김희영, 2010; 박우람, 홍상환, 2015; 박인경, 2010; 유선미, 2013; Marsee & Frick, 2007) 남·녀 모두 정서조절이 낮으면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신현숙, 2013). 또한 공격성 수준이 높으면 스마트폰을 더 자주 사용하고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으로까지 연결 될 수 있다(김현정, 2014; 류경희, 홍혜영, 2014; 박은민, 박기희, 2104; 황승일, 2012).

마지막으로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주 2012; 류경희, 홍혜영, 2014; 박수빈, 2013; 서애정, 2013; 손경문 2013; 양혜경, 2014; 황승일, 2012). 반면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박정아, 2013). 성별과 공격성에 관한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신체적, 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공격성을 보이며 여학생은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대가가 크므로 적의성, 분노, 타인에 대한 의심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공격성으로 표출된다(Buss & Perry, 1992, 유경연, 2015, 재인용). 또한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하며(Crick & Grotpeter, 1995; Little et al., 2003; Prinstein et al., 2001), 관계적 공격의 경험을 남학생 보다 더욱 고통스럽게 지각한다(Crick, Grotpeter, & Bigbee, 2002). 이처럼 성별은 의미있는 개인차 변인으로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며, 공격성을 세분화하여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각각이 본 연구를 통해 성차의 유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서조절능력 수준이 높으면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격성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을 높여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 스마트폰 중독이 관계를 알아보고,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남녀 별로 공격성의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각각 측정된 후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서조절능력, 공격성,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정서조절능력, 외현적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 스마트폰 중독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정서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외현적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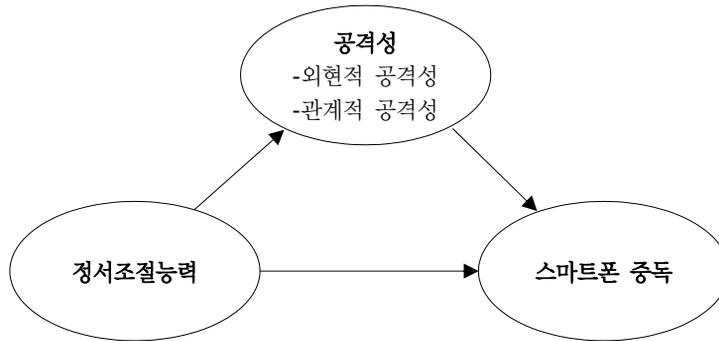
가설 2-3. 관계적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공격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가?

가설 3-1. 정서조절능력은 외현적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정서조절능력은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4.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충청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에 부분적으로 응답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69부를 제외한 80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구성은 전체 803명의 중학생 중 남학생이 365명(45.5%), 여학생이 438명(54.5%)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스마트폰 중독 척도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자가진단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문항 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Likert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이며, 점수 범위는 15-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고위험군에 속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일상생활장애 .75, 가상세계 지향성 .61, 금단 .80, 내성 .70, 전체 .90로 나타났다.

나. 정서조절능력 척도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Goldman(1995), Saarni(1989),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척도를 조인영(2007)이 4개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과 타인조절의 2개 하위척도를 예비조사를 거쳐 추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평정 척도는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며, 각 하위요인별로 자기조절능력이 .80, 타인조절능력이 .81로 나타났다.

다. 공격성 척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이 제작하고 한영경(2008)이 번안한 자기-보고형 또래갈등 척도(PCS: Peer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 20문항, 관계적 공격성 20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확실히 그렇다)로 측정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현적 공격성 .89, 관계적 공격성 .86, 전체 .92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SPSS 20.0을 사용하여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산출 등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남녀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공격성, 정서조절능력,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과 변인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하여 남녀 집단 간의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기초분석

가. 기술통계 결과

정서조절능력과 관계적 공격성은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외현적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현적 공격성에서는 남학생이($t=4.31, p<0.001$), 스마트폰 중독에서는 여학생($t=-6.33, p<0.001$)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남녀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t검정 결과

변인	남(N=365)		여(N=438)		t
	M	SD	M	SD	
정서조절능력	4.04	.58	4.09	.54	-1.47
외현적 공격성	1.18	.27	1.11	.21	4.31***
관계적 공격성	1.16	.24	1.17	.18	-.61
스마트폰 중독	1.93	.52	2.18	.58	-6.33***

※ *** $p < 0.01$

나. 주요변인간의 상관분석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Kline(2005)에 의하면 왜도의 값이 3, 첨도의 값이 10 이하인 경우 측정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이 심각하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최인화 외, 2015). 주요변인들의 왜도는 -1.23~2.24의 분포였고, 첨도는 -.45~5.62의 분포를 보여, 정규성 가정이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r=-.28, p<.001$), 스마트폰 중독($r=-.24, p<.0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각 변인의 하위요인별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능력은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r=-.24, p<.001$),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와 가상세계지향성($r=-.20, p<.001$), 금단과 내성($r=-.21, p<.0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의 하위변인인 타인조절능력은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r=-.22, p<.001$), 관계적 공격성($r=-.19, p<.001$),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r=-.15, p<.001$), 가상세계지향성($r=-.17, p<.0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r=.17, p<.001$), 가상세계지향성과 금단($r=.18, p<.001$), 내성($r=.14,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 하위변인인 일상생활장애($r=.24, p<.001$), 가상세계지향성($r=.21, p<.001$), 금단과 내성($r=.22,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

	1	1-1	1-2	2	2-1	2-2	3	3-1	3-2	3-3	3-4
1. 정서조절능력	1										
1-1. 자기조절능력	.88***	1									
1-2. 타인조절능력	.87***	.54***	1								
2. 공격성	-.28***	-.26***	-.23***	1							
2-1. 외현적공격성	-.26***	-.24***	-.22***	.93***	1						
2-2. 관계적공격성	-.25***	-.24***	-.19***	.89***	.66***	1					
3. 스마트폰중독	-.24***	-.24***	-.18***	.25***	.20***	.27***	1				
3-1. 일상생활장애	-.20***	-.20***	-.15***	.22***	.17***	.24***	.88***	1			
3-2. 가상세계지향	-.21***	-.20***	-.17***	.21***	.18***	.21***	.77***	.54***	1		
3-3. 금단	-.21***	-.21***	-.15***	.22***	.18***	.22***	.83***	.53***	.71***	1	
3-4. 내성	-.21***	-.21***	-.15***	.19***	.14***	.22***	.89***	.75***	.56***	.61***	1
평균	4.07	3.95	4.17	1.15	1.14	1.16	2.06	2.25	1.61	1.88	2.24
표준편차	.55	.678	.59	.20	.24	.20	.56	.65	.63	.69	.67
왜도	-1.03	-.66	-1.23	2.12	2.24	2.08	.32	.07	.92	.72	.16
첨도	2.82	.70	3.31	5.24	5.62	5.47	-.26	-.45	.40	.14	-.39

※ *** $p < 0.01$

2.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을 독립변인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하여 실시한 회귀 분석 결과, 정서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2.14, p<.001$) 6%의 설명력을 보였다.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독립변인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지정하여 실시한 회귀 분석 결과, 외현적 공격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07, p<.001$) 35%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F 값이 49.48로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하였고, 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서조절능력,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SE	t	R ²	F
스마트폰 중독	정서조절능력	-.25	-.25	.04	-7.22***	.06	52.14***
	외현적 공격성	.16	.19	.10	5.45***	.35	30.07***
	관계적 공격성	.65	.24	.09	7.03***	.06	49.48***

※ *** $p < 0.01$

3.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가. 측정모형 검증(Measurement Model)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CFI=.952, TLI=.936, RMSEA= .080(.072~.088)으로 CFI, TLI는 .90 이상이며, RMSEA는 .80이 양호한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적합기준을 충족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p	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측정모형	361.666	.000	59	.952	.936	.080(.072~.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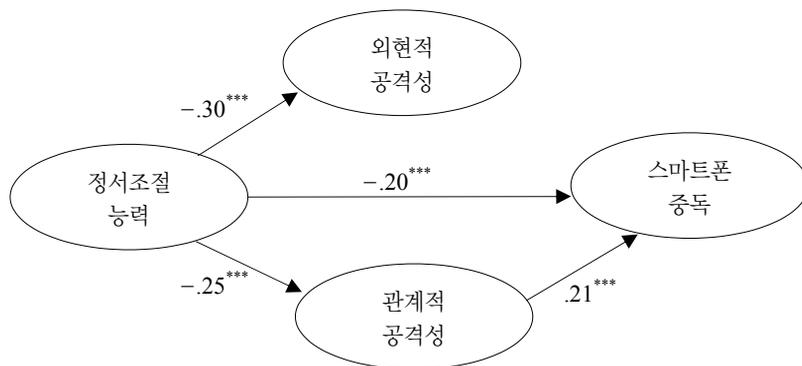
나. 구조모형 검증(Structural Model for Testing Mediated Effects)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부분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CFI=.980, TLI=.974, RMSEA=.051(.043~.060)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현적 공격성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가 58에서 59로 1 증가한데 비해 χ^2 의 증가량이 0.418으로 자유도 1에 대한 임계치인 3.84보다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더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는 <표 5>와 같으며, 구조모형은 <그림 2>과 같다.

<표 5>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p	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180.785	.000	58	.980	.974	.051 (.043~.060)
최종모형	181.203	.000	59	.981	.974	.051 (.042~.059)



※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05$, ** $p<.01$, *** $p<.001$

<그림 2> 최종 모형

다.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정서조절능력과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는($\beta=-.30, p<.001$), 정서조절능력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는($\beta=-.25, p<.001$), 관계적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는($\beta=.21, p<.001$),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는($\beta=-.20, p<.001$)로 나타났다.

<표 6>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정서조절능력 → 외현적 공격성	-.11	-.30	.02	-7.45***
정서조절능력 → 관계적 공격성	-.10	-.25	.02	-6.40***
관계적 공격성 → 스마트폰 중독	.59	.21	.11	5.28***
정서조절능력 → 스마트폰 중독	-.23	-.20	.05	-5.01***

※ * $p<.05$, ** $p<.01$, *** $p<.001$

라.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 관계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보고,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본래의 표본으로부터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한 후, 관심사인 통계치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통계치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Shrout & Bolger, 2002). 이를 위해 원 자료로부터 무선할당으로 형성된 10,000개의 표본에서 직접 및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Shrout와 Bolger (2002)의 제안에 따라 95% 신뢰구간에 0의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신뢰구간)	총효과
관계적 공격성 -----> 스마트폰 중독	3.93*** (.12~.29)	-	3.93*** (.12~.29)
정서조절능력 -----> 스마트폰 중독	-.203	-.054*** (-.08~-0.03)	-.257** (-.33~-0.18)

※ * $p<.05$, ** $p<.01$, *** $p<.001$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과정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054, $p < .001$)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적 공격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검증

가. 형태 동일성 검증

형태 동일성 검증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에 동일한 측정변인이 동일한 잠재변인에 적재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유도가 58에서 59로 최종모형에서 1 증가한데 비해 χ^2 의 증가량이 남학생 0.008, 여학생 1.834로 자유도 1에 대한 임계치인 3.84보다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더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여 성별을 나누어 모형들 간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CFI와 TLI의 값이 .90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RMSEA도 남학생 .065, 여학생 .050으로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형태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8> 형태 동일성 적합도 지수

모형	성별	χ^2	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남	147.626	58	0.97	0.96	.065 (.052~.078)
	여	121.216	58	0.98	0.973	.050 (.037~.062)
최종모형	남	147.634	59	0.971	0.961	.064 (.051~.077)
	여	123.050	59	0.98	0.974	.050 (.037~.062)

나. 측정 동일성 검증

측정 동일성은 각 측정변인들이 각 집단에서 동일한 척도에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 계수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모수치들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요인계수가 집단 간에 동일하다고

제한시킨 측정 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다.

<표 9> 측정 동일성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Delta\chi^2$	Δ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판정
기저모형	270.696	118			.98	.97	.040 (.034 ~ .047)	
완전측정 동일성모형	302.119	127	31.423**	9	.97	.97	.041 (.035 ~ .048)	기각
부분측정 동일성모형	280.883	125	10.187	7	.98	.97	.039 (.033 ~ .046)	채택

기저모형과 완전 측정 동일성 모형을 비교해보면 완전 측정 동일성 모형은 측정변인에서 잠재변인으로 가는 모든 경로를 제약하였기 때문에 완전 측정 동일성 모형의 자유도가 기저모형보다 9가 증가하였다. 또한 자유도가 9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는 16.919이고, χ^2 증가량 31.423으로 값이 크기 때문에 두 집단의 측정요인계수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완전 측정 동일성의 가정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요인계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스마트폰 중독의 첫 번째 요인과 외현적 공격성의 세 번째 요인계수의 측정동일성 제약을 풀어주어, 부분 측정 동일성을 가정한 결과 기저모형과 부분 측정 동일성 모형을 비교해 보면 자유도가 기저모형보다 7이 증가하였고, 자유도가 7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는 14.067이고, χ^2 증가량이 10.187이 14.067보다 작게 나타나서 두 집단의 측정요인계수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분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CFI=.98, TLI=.97, RMSEA도 .039로 매우 좋음으로 나타나 부분 측정 동일성의 가정이 만족되었다.

다. 구조 동일성 검증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 검증으로 가정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집단 간의 잠재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잠재변인 간에 경로계수 차이가 작은 경로부터 동일화 제약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홍세희, 2010).

경로계수의 동일화 제약순서는 ‘관계적 공격성 → 스마트폰 중독, 정서조절능력 →

관계적 공격성, 정서조절능력 → 스마트폰 중독, 정서조절능력 → 외현적 공격성’ 순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서조절능력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1>에서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beta=-.31, p<.001$)이 여학생($\beta=-.27, p<.001$)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경로에서는 남녀 간의 계수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0> 구조 동일성 적합도 지수

	χ^2	df	$\Delta\chi^2$	Δ 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판정
부분측정동일성 모형	280.88	125	10.19	7	.975	.969	.039 (.033~.046)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1) 관계적 공격성 → 스마트폰 중독	281.93	126	1.04	1	.975	.969	.039 (.033~.045)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2) 관계적 공격성 → 스마트폰 중독 정서 조절능력 → 관계적 공격성	282.48	127	.56	1	.975	.969	.039 (.033~.045)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3) 관계적 공격성 → 스마트폰 중독 정서 조절능력 → 관계적 공격성 정서 조절능력 → 스마트폰 중독	283.48	128	0.99	1	.975	.970	.039 (.033~.045)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4) 관계적 공격성 → 스마트폰 중독 정서 조절능력 → 관계적 공격성 정서 조절능력 → 스마트폰 중독 정서 조절능력 → 외현적 공격성	289.74	129	6.26*	1	.974	.969	.039 (.033~.046)	기각

※ * $p<.05$, ** $p<.01$, *** $p<.001$

〈표 11〉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

			남				여			
			B	β	SE	t	B	β	SE	t
정서 조절능력	→	관계적 공격성	-.08	-.22	.02	-3.84***	-.10	-.29	.02	-5.35***
정서 조절능력	→	스마트폰 중독	-.15	-.23	.04	-3.81***	-.20	-.22	.05	-3.99***
정서 조절능력	→	외현적 공격성	-.11	-.31	.02	-5.47***	-.07	-.27	.01	-5.15***
관계적 공격성	→	스마트폰 중독	.36	.21	.10	3.52***	.59	.22	.15	3.98***

※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변인 탐색을 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른 발달 시기보다도 청소년기의 시작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절능력, 공격성,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은 공격성과 부적상관이 있고,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각각 정서조절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영향을 주며, 정서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을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이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다수의 연구들(고성자, 2012; 김서현, 2011; 이만제, 2009; 최재천 외 2014)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다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김현정, 2014; 류경희, 홍혜영, 2014; 박은민, 박기희, 2014)와 공격성

이 스마트폰 중독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황승일(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격성의 하위변인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구분하여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보다는 포괄적인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각각 확인하였고, 그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상관의 정도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관계적 공격성이 외현적 공격성보다 스마트폰 중독과 조금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조절능력,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김주현(2014)과 최형성(2015)은 회피-분산적 정서조절과 같은 역기능적 정서조절능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조절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자극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시·공간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의존적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전미아(201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이 각각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하는 외현적 공격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욕설, 언어폭력 등 언어적 공격성은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양돈규, 2000; 이성식, 2005a; 이정기, 2011)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은 간접적인 형태로서 스마트폰의 콘텐츠 SNS상에서 신체적인 공격은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언어적 또는 관계적 괴롭힘 행위인 SNS또래괴롭힘(안수빈, 이강이, 2014)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적응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개인의 직접적인 외현적 공격성과 간접적인 관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매체에 투여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공격성을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이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기존의 스마트폰 중독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의미 있는 예언변인일 수 있으나 각각의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성에 따라 공격성의 하위변인 각각의 매개효과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을 시사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서조절능력이 외현적 공격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는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행동은 초기 청소년기 즈음에 증가하고 외현적 공격성은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안정적이거나 또는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Loeber & Hay, 1997)과 청소년기에는 외현적 공격성보다 남녀 모두에게 비신체적인 공격성이 많아진다는 Cairns과 동료들(1989)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Harachi와 동료들(2006)도 초기에 높은 수준의 신체적 공격성을 보여준 청소년들이 추후에 내현적 비행과 물질 남용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공격성이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우람과 홍상환(2015)은 정서조절이 낮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정서조절 능력 중 회피전략과 같은 역기능적 정서조절은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희영, 2010)와도 일맥상통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관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의미있는 예언변인임을 나타낸다.

넷째, 정서조절능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에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서 남·녀 차이를 검증할 결과, 정서조절능력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경로에서는 남·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외현적 공격성은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Crick와 Wemer(1998)의 연구결과와 남·녀 모두 정서조절능력이 외현적 공격성과 부적 영향을 미치나, 남학생에게서 더 크게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서적인 특성상 남자가 표출하는 공격성은 여자보다 쉽게 용인되고 그것이 남자다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이 남자가 다양한 유형으

로 공격성을 표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박성연, 강지훈, 2005)는 연구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하위 변인인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조절능력,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정서조절능력,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다양한 상황과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을 강화하는 개입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전체 공격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연구만을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공격성의 하위변인인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각각이 스마트폰 중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이 남·녀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의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의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치료 및 예방하는데 있어 실증적인 치료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중독이 아닌 전체적 성향을 보는 것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게 나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충청 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의 표집을 확장시켜야 한다. 셋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주관성, 반응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가능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성을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절능력,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외에 개

인 내적 자원이나 특성 중 변화 가능하고 교육적으로 효과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후속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다양한 콘텐츠 기능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중재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방안 및 프로그램 등이 개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고성자(2012). 휴대폰 의존성 진단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학회, 25(2), 43-68.
- 김서현(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2014). 남녀에 따라 중학생이 지각한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한국아동학회지, 27(3), 149-168.
- 김현정(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 폭력과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주(201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발달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2010). 어머니의 통제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 홍혜영(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157-183.
-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서울대 교육연구소.
- 박성연, 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6(1), 1-14.
- 박수빈(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 생활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우람, 홍상환(2015).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정서조절, 질투와 시샘의 순차적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4(1), 1-23.
- 박은민, 박기희(2014).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9(3), 529-547.
- 박인경(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및 정서조절능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아(2013).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지선(2012).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애정(2013).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영문(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여부에 따른 온/오프라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미(2012). 스마트폰 이용동기 및 정도와 과다사용 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2013). 남녀 청소년의 공격성 군집에 따른 우울, 자극추구성향, 정서조절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2), 191-215.
- 안수빈, 이강이(2014).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 1, 147-154.
- 양돈규(2000). 청소년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 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25.
- 양혜경(2014) 개인적, 환경적, 매체 특성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민경(2013).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성의 조절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연(2015). 중학생의 공격성과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선미(2013). 지각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만제(2009). 대인 커뮤니케이션 특성 및 자아성향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3), 99-127.
- 이민석(2011).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2005a).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기존 요인들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1) 77-107.
- 이정기(2011). 청소년의 성향적 휴대폰 이용동기와 중독, 언어폭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2), 365-401.
- 전미아(2014). 청소년의 일상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

- 의 조절효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진(2014).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동조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진(2012).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존감, 충동성 및 사회성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영(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천, 이지연, 장진이(2014). 청소년의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 성격 특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5(2), 323-345.
- 최인화, 김현미, 김진희, 정민선, 박미진(2015). 청소년상담자의 직무자원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 직업몰입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1), 157-177.
- 최형성(2015).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조절과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4), 155-174.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문화진흥원 미디어중독대응부.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2015). 2014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미경(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진(201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승일(2012).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경(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on, L. L. & Gariepy, J. L.(1989). Growth and Aggression .1.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320-330.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 1134-1142.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Harachi, T. W., Fleming, C. B., White, H. R., Ensminger, M. E., Abbott, R. D., Catalano, R. F. & Haggerty, K. P.(2006). Aggressive Behavior Among Girls and Boys During Middle Childhood: Predictors and Sequelae of Trajectory Group Membership. *Aggressive Behavior*, 12, 279-293.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 Guilford.
- Kolbert, J. B., Field, J. E., Crothers, L. M. & Schreiber, J. B.(2010). Femininity and depression mediated by soci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School Violence*, 9(3), 289-302.
-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22-133.
- Loeber, R. & Hay, D.(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Marsee, M. A., Barry, C. T., Childs, K. K., Frink, P. J., Kimonis, E. R., Munoz, L. C. & Lau, K. S. L.(2007). Assessing the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using self-report: Factor structure and invariance of the peer conflict scale in youths.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792-804.
- Oktan, V.(2011). The predictiv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management skills and internet addic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9(10), 1425-1430.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479-491.
- Saarni, C.(1989). *Children's understanding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

- social transactions. In C. Saarni & P.(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xpres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 Schwartz, D. & Proctor, L. J.(2000).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Paper presented at ISSBD XIV Meeting in Beijing.
- Shapira, N. A., Goldsmith, T. D., Keck, P. E., Khosla, U. M. & McElroy, S., L.(2000). Psychiatric features of individuals with problematic internet us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7*(1-3), 267-272.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Weinstein, A. & Lejoyeux, M.(2010). Internet addiction or excessive internet use.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6*, 277-283.
-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Abstract〉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 Regulation Ability on Smart Phone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Aggression -

Yoon, Bo-young · Jung, Eun-jung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 regulation ability, aggression, and smart phone addiction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smart phone addiction. For this purpose, 803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area comple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 regulation abili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overt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which were the subtypes of aggression, and with smart phone addiction. Also, overt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presented positive correlation with smart phone addiction. Seco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had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smart phone addiction while each of overt aggress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mart phone addict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overt aggression was not significant when the emotion regulation ability's mediated aggression to examine the effect on smart phone addiction; yet,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was found significant. Th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ability of the male students presented significant difference on overt aggression compared with the female ones; however, the other path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the findings, the emotion regulation ability's mediated aggression to examine the effect on smart phone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was found significant.

Key words : emotion regulation ability,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smart phone addiction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박지영* · 문소영**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실험 집단 8명, 통제집단 7명으로 무선 배치하여 주 1~2회, 40분, 12회기 노래중심 음악치료 세션을 실시하였다.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노래를 활용해서 중재하는 방법으로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하기, 노랫말 만들기를 포함하고 있다. 각 회기별 주제는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소를 긍정성, 통제성, 사회성 순으로 배치하여서 진행하였다. 노래중심 음악치료에서 사용한 노래는 각 회기별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예비 곡을 선정 후 음악치료 참여 대상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서 선곡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청소년용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YKQR-27)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회복탄력성 점수가 향상되었으며($p < .033$) 하위 영역 중 특히, 사회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p < .040$).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회복탄력성 변화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 점수가 향상하였으며($p < .027$), 긍정성($p < .036$)과 사회성($p < .035$)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음악치료, 노래중심 음악치료, 저소득층 청소년, 회복탄력성

* 본 연구는 박지영(2016)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문소영(symoon@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6년 6월 20일 ■ 최종 수정일 : 2016년 8월 12일 ■ 게재 확정일 : 2016년 8월 14일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여 중산층과 하위 계층이 상류층으로 지위를 이동할 수 없게 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빈곤기준에 의해 생활보호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영아, 2005). 이러한 빈곤은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며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저소득층 청소년은 저소득과 청소년의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구진순, 2011). 저소득층 가정의 열악한 환경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가정 해체, 인간 소외 문제, 주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이대성, 2013; 장희정, 2011).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과외, 학원 등 사교육의 기회가 적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학업 부진 등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노혁, 2007).

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사람은 존재한다. Werner와 Smith의 카우아이섬 종단연구에 따르면 극빈층, 심한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과 별거, 양육자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도 3분의 1의 아이들은 심각한 문제없이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3분의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된 속성으로 회복탄력성이 언급되었다. 회복탄력성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김주환, 2011). 모든 사람들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주환, 2011; 최성애, 2014).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기감정 이해 및 조절에 탁월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Reivich & Shatte, 2002, 최성애, 2014). 또한 타인의 정서 상태를 감지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고 힘든 시기를 친밀한 관계에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다(Reivich & Shatte, 2002). 청소년 시기의 회복탄력성은 정신건강,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녕감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Anthony, 1987).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 이들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치료 및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다양한 음악 활동 중 노래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노래는 매우 대중화되고 친숙한 음악 활동으로 특히 청소년들은 노래를 활용하는 감상과 노래 부르기를 가장 선호하는 음악 활동으로 지목하였다(류경빈, 2014). 노래는 삶의 보편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서 자신의 내면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객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반영하고 표현하며 이를 수용하는 매개체가 된다(최미환, 2006). 이러한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노래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하기, 노래 만들기 등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활동이 반영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래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하기, 노래 만들기를 사용하였다.

노래 감상기법은 클래식, 대중가요, 뉴에이지,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 분석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석하는 방법이다(최미환, 2006). 본 연구에서는 대중가요를 활용하여 노래를 통해 내담자가 다양한 각도로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시각 자료인 뮤직비디오, 라이브 영상,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여 음악 감상을 촉진하였다.

노래 부르기는 개인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음악적 행동을 의미한다(최미환, 2006). 이러한 노래하기의 목적은 스트레스 해소, 의사소통 능력 증진,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정현주, 2015). 본 연구에서는 대중가요를 감상한 뒤 악보를 제공하고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노래 토의는 노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이다. 노래 토의 과정 속에서 치료사는 질문을 통해 노래에 관련한 토의를 자극할 수 있다.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음악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단계, 두 번째로 노래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사용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노래의 의미와 내담자의 삶을 연관 짓는 질문을 통해 노래 토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Grocke & Wigram, 2011). 노래를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규명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래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문제에 대해 공감과 동일시를 경험할 수 있다(정현주, 김동민, 2010).

노래 만들기에서는 작사, 작곡, 기악곡 작곡, 기보활동, 음악 콜라주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곡을 활용하여 노래의 말, 어구 또는 전체 가사를 바꾸는 노랫말 만들기를 사용하였다. 노랫말 만들기는 청소년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최미환, 2006; Baker & Wigram, 2008).

한편,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음악치료의 다양한 기법을 여러 임상 집단에게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음악치료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여정운, 2012), 인지-행동적 접근에 기반을 둔 음악활동 프로그램도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다(김희연, 2014). 집단 음악치료는 조현병 환자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문인숙, 2013), 노래심리치료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중년여성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되었다(장은영, 2015). 이렇듯 음악치료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조현병 환자와 중년여성 등 다양한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회복탄력성의 하위 영역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통제성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치료적 노래 만들기를 활용한 음악치료는 자기 통제성을 향상시키며 충동성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김수진, 2014; 이영미, 2005). 긍정성은 삶에 대한 감사와 생활 만족도, 자기 낙관성을 의미하는데 노래는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건설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우며 역경을 통해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Mcferran, 2010; 정현주, 2011). 또한, 노래심리치료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표현하며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다(임해주, 2009; 임현정, 2009; 정현주, 2011).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이해와 공감 등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래를 만드는 과정은 일종의 사회적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Baker & Wigram, 2008). 그룹 노래 만들기는 노래를 만들어 가면서 함께 협동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Mcferran, 2010).

위의 문헌을 통해 음악치료는 다양한 대상자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래중심 음악치료는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소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회복탄력성 전체에 어떠한 효과성이 있는지는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연구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회복탄력성 점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은 사전-사후 검사에서 회복탄력성의 점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하고 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1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6명의 청소년 중 8명을 실험집단, 8명을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통제 집단의 최초 모집 인원은 8명이었으나 사후 검사를 실시할 때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석하였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참여 인원은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7명으로 총 15명이 사후 검사에 응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인 배경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n	%	n	%	n	%	
학년	중학교 1학년	6	75	7	100	13	86.7
	중학교 2학년	2	25	0	0	2	13.3
성별	남	3	37.5	5	71.4	8	53.3
	여	5	62.5	2	28.6	7	46.7
가족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25	2	28.6	4	26.7
	차상위계층	6	75	5	71.4	11	73.3
가구원수	3인 가구	1	12.5	2	28.6	3	20
	4인 가구	2	25	1	14.3	3	20
	5인 가구 이상	5	62.5	4	57.1	9	60
음악치료경험여부	있음	2	25	2	28.6	4	26.7
	없음	3	37.5	3	42.9	6	40.0
	모름	3	28.6	2	28.6	5	33.3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실험·통제 집단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검사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적용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회복탄력성 하위요소를 활용해 내담자가 작성한 노랫말 내용을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신우열, 김민규, 김주한(2009)이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YKRQ-27)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가지 유형(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이 각각 3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또한, 9가지 유형은 다시 2차 요인으로 분류되어 통제성(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사회성(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으로 분류되었다. 문항 형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어느 정도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채점하며 문항 중 9번, 10번, 12번, 19번, 20번, 21번은 역점수로 환원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회복탄력성의 총점 범위는 27~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청소년용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 문항구성

요인	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통제성	원인분석력	3	1, 2, 3
	감정통제력	3	4, 5, 6
	충동통제력	3	7, 8, 9*
긍정성	감사하기	3	10*, 11, 12*
	생활만족도	3	13, 14, 15
	낙관성	3	16, 17, 18
사회성	관계성	3	19*, 20*, 21*
	커뮤니케이션 능력	3	22, 23, 24
	공감 능력	3	25, 26, 27
	총 문항 수	27	

3.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가.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활동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2015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8주간, 주 1~2회, 40분, 총 12회기의 세션으로 실시되었다.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선행연구에서 여정윤(2012)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자아’와 관련된 통제성, 긍정성을 차례대로 배치한 뒤 ‘타인’과 관련된 사회성을 마지막 주제로 다루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의 요인을 기반으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본 연구는 긍정성, 통제성, 사회성의 순서로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이는 자아에서 시작하여 타인과 관련된 영역으로 배치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자아’ 영역의 순서 체계를 달리하였다. 김주환(2011)은 “긍정적 정서를 키운다는 것은 곧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뜻이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관계를 향상시킨다는 뜻”이라고 하였다(p.219). 이러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통제력과 사회성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Nicholson과 Clarke(2010)는 “회복탄력성을 발휘하는 데는 상당히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p.46).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와 관련된 ‘긍정성’이 기반이 되어야 ‘통제성’과 ‘사회성’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성, 통제성, 사회성의 순으로 주제를 배치하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1회기 주제는 ‘만남’, 2~4회기는 ‘긍정성’, 5~7회기는 ‘통제성’, 8~10회기는 ‘사회성’, 11회기는 ‘회복탄력성’, 12회기 주제는 ‘헤어짐’으로 배치를 하였다.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래 감상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하기, 노랫말 채우기를 활용하였다. 노래 감상하기 활동에서는 시각매체인 뮤직비디오, 방송영상,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해서 청소년의 음악 감상을 촉진하였다. 음악 감상 후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기타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가수, 악기, 분위기, 노래 가사 등 노래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감정, 생각,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한 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고 발표하였다. 노랫말 만들기에서는 노래 감상에서 사용했던 선율과 가사를 회기별 주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음 <표 3>은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주제와 세부 구성 내용이다.

〈표 3〉 회기별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구성

회기	주제	세부내용
1	만남 관계 형성하기	음악치료 프로그램 소개, 자기소개 노래를 부른 뒤 이름·취미·성격·선호하는 대상·가수·노래 등 노랫말을 만들고 발표하기, 음악치료 시간 내 지켜야하는 규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규칙 노래를 만들기
2	감사하기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내담자의 어려웠던 상황에서 여러 도움 받았던 경험과 감사의 이유 및 감사 대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만들기, 발표하기
3	긍정성 생활 만족도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사람, 가족, 학교, 동네, 등 주변 환경의 긍정적 자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만들기, 발표하기
4	낙관성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자신의 외모, 성격, 특기 등 다양한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만들기, 발표하기
5	통제성 감정조절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감정이 발생하는 상황, 감정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만들기, 발표하기
6	통제성 충동통제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가끔 해야 하는 것을 분류하고 이야기 나누기),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만들기, 발표하기
7	원인분석	노래 감상, 노래 토의(노래 속 주인공의 상황, 싸움의 원인, 감정 상태, 문제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8	소통능력	노래 감상, 노래 토의(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이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기)
9	사회성 공감능력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공감을 받았던 경험 혹은 공감할 수 있었던 경험, 공감의 방법, 힘든 상황에 위로해줄 수 있는 말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만들기, 발표하기
10	자아 확장력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타인을 돕는 상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만들기, 발표하기
11	회복 탄력성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힘든 상황 속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기),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만들기, 발표하기
12	주제별 회상	노래 감상, 노래 부르기, 노래 토의(나의 재능, 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랫말 만들기, 발표하기

나. 노래선정 기준

노래중심 음악치료에서는 가사를 고려한 선곡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가사를 분석하

고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세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정현주, 김동민, 2010). 또한, 선호도가 반영된 노래는 치료사와의 관계 형성과 치료적 속도와 효과에도 영향을 끼치며 특히, 청소년 내담자들은 개인의 흥미에 따른 활동 참여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류경빈,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래 선곡을 할 때 각 회기별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예비 곡을 선정하여 음악치료 참여 대상자에게 선호도를 조사하여 선정하였다.

예비 곡은 각 회기별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노래 가사를 중점으로 지도 교수와 논의하여 각 주제별로 3곡씩 선정하였다. 이후 음악치료 참여 대상자에게 주제별 예비 곡을 제시하였고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그룹별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각 회기별 선정된 노래와 가수 제목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주제별 가수명 및 제목

세부영역	가수	제목
감사하기	정인	고마워
생활 만족도	제이레빗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윤하 (feat. 칸토)	All day, everyday
낙관성	악동 뮤지션	매력 있어
감정조절	좋아서 하는 밴드	감정의 이름
	박지윤	나무가 되는 꿈
충동통제	요조	내가 말했잖아
	옥상달빛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원인분석	에픽하이 (feat. 윤하)	또 싸워
	리쌍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소통능력	김진우	의사소통
	미씽 아일랜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공감능력	커피소년	내가 니편이 되어줄게
	성시경	노래가 되어
자아 확장력	옥상달빛	선물할게
	허니지	오래된 친구
회복 탄력성	커피소년	상처는 별이 되죠
	처진 달팽이	말하는 대로

Ⅲ.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PSS WIN 21.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교차분석의 카이검정을 실시하여 실험설계에 참여한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실험 전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 동질성과 실험 후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실험 후 실험집단 내 회복탄력성 변화를 검증하였다.

Ⅳ. 결과

1. 회복탄력성 변화

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회복탄력성 동질성 검사

실험 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이 동질한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회복탄력성과 9개의 하위 영역 전체가 유의수준 .05 이상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동질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중재 전 회복탄력성의 동질성 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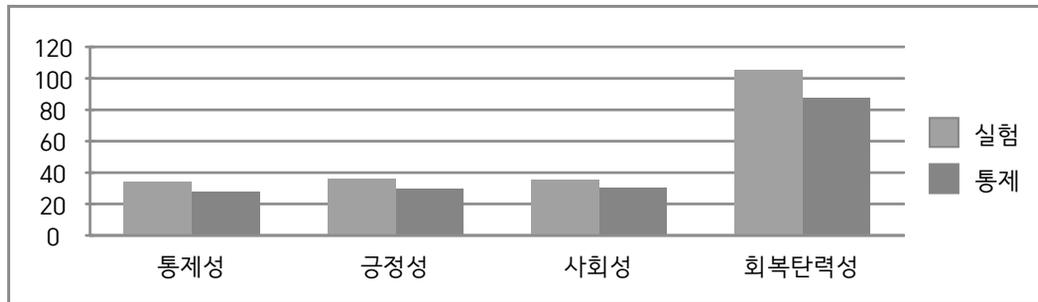
변인	집단	N	M	SD	t	p	
통제성	원인분석력	실험	8	11.25	1.98	.94	.36
		통제	7	10.29	1.98		
	감정통제력	실험	8	10.75	1.98	-.09	.92
		통제	7	10.86	2.27		
	충동통제력	실험	8	9.63	1.51	-.43	.67
		통제	7	10.00	1.83		
긍정성	감사하기	실험	8	11.13	2.64	.21	.83
		통제	7	10.71	4.64		
	생활만족도	실험	8	11.38	1.85	.70	.49
		통제	7	10.29	3.90		
	낙관성	실험	8	10.88	2.23	.54	.59
		통제	7	10.00	3.92		
사회성	관계성	실험	8	12.00	3.16	.44	.66
		통제	7	11.29	2.98		
	커뮤니케이션 능력	실험	8	10.00	1.41	.99	.33
		통제	7	8.71	3.35		
	공감 능력	실험	8	10.00	2.33	-.58	.57
		통제	7	10.86	3.34		
회복탄력성	전체	실험	8	97.00	14.37	.41	.68
		통제	7	93.00	23.03		

나. 노래중심 음악치료 여부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 집단과 통제집단 간 회복탄력성 전체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회복탄력성 전체 점수는 <표 6>과 같이 실험집단이 105.25점으로 통제집단 87.14점 보다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8, p<.05$). 통제성에서 실험집단은 34.0점으로 통제집단 27.71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긍정성에서 실험집단은 36.13점, 통제집단은 29.43점으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에서 실험집단은 35.13점으로 통제집단 30.00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t=2.28, p<.040$).

〈표 6〉 노래중심 음악치료 중재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변인	집단	N	M	SD	t	p
통제성	실험	8	34.00	6.55	1.93	.07
	통제	7	27.71	5.96		
긍정성	실험	8	36.13	6.15	2.11	.05
	통제	7	29.43	6.11		
사회성	실험	8	35.13	3.64	2.28*	.04
	통제	7	30.00	5.03		
회복탄력성(전체)	실험	8	105.25	14.28	2.38*	.03
	통제	7	87.14	1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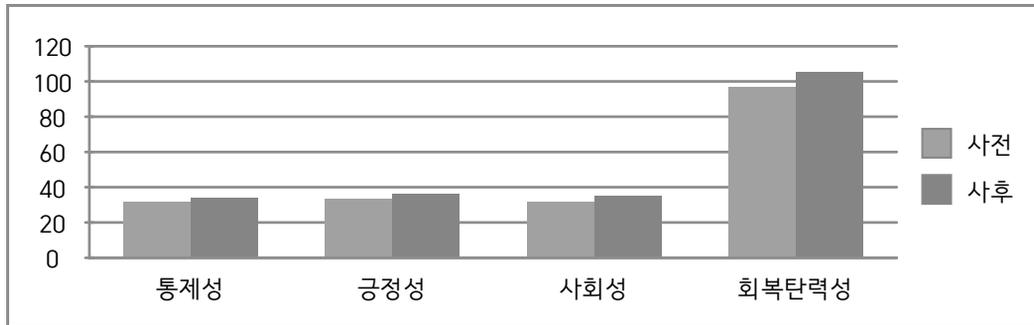
〈그림 1〉 노래중심 음악치료 중재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다.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실시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변화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회복탄력성 점수는 97점에서 105.25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t=-2.79$, $p<.027$). 통제성에서는 31.63점에서 34.00점으로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긍정성에서는 33.38점에서 36.13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58$, $p<.036$), 또한, 사회성에서는 32.00점에서 35.13점으로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t=-2.60$, $p<.035$).

〈표 7〉 실험집단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점수 차이

변인	집단	사전		사후		평균차	t	p
		M	SD	M	SD			
통제성	실험	31.63	4.81	34.00	6.55	-2.37	-1.58	.15
긍정성	실험	33.38	6.07	36.13	6.15	-2.75	-2.58*	.03
사회성	실험	32.00	4.60	35.13	3.64	-3.13	-2.60*	.03
회복탄력성 (전체)	실험	97.00	14.37	105.25	14.28	-8.25	-2.79*	.02



〈그림 2〉 실험집단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점수 차이

2. 회복탄력성에 관한 내용 분석

본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소인 긍정성, 통제성, 사회성을 활용해서 내용 분석을 하였다. 내용분석은 노래중심 음악치료에서 내담자가 직접 만든 노랫말 채우기, 노래 토의하기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표 8>은 긍정성과 관련하여 음악치료 참여대상자가 작성한 내용으로 밑줄 친 부분이 노래 가사로 표현된 내용이다.

〈표 8〉 긍정성과 관련하여 대상자 A(여, 14세)가 만든 노래 가사 분석

영역	노래 가사	분석
감사하기	아픈 상황 속에서 <u>괜찮냐고 물어주었던 친구들</u> 고마워, 친구들	A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며 활발한 매력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자신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는 것은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낙관성과도 관련 있다.
생활 만족도	들어봐, <u>부모님과 여러명이 날 위한 사람</u> . 좋아해, <u>외로움 같은 건 없는 즐거운 우리 가족</u> . 만족해, <u>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학교</u> . 즐겨봐, <u>전부 날 위한 우리 동네야</u> .	A는 문제나 감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인적 자원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낙관성	매력 있어, 나는 매력 있어. <u>먹을 것 보다 나는 더 매력 있어</u> . 나는 <u>활발한 매력의 소유자</u> . 매력 있어, 나는 매력 있어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모든 저소득층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이 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이 지닌 회복탄력성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중 노래를 중점으로 사용하는 노래중심 음악치료에서도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소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Baker & wigram 2008; Mcferran, 2010; 김수진, 2014; 이영미, 2005; 임해주, 2009; 임현정, 2009; 정현주, 김동민, 2010; 정현주 2011). 이에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3$). 또한, 사회성 전체 점수($p < .04$)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전반적인 회복탄력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회성 영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룹원들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토의하며 가사를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증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의 생각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래중심 음악치료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회복탄력성 점수는 중재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2$). 또한, 긍정성 전체 점수($p < .03$)와 사회성 전체점수($p < .03$)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회복탄력성 증진과 더불어 사회성과 긍정성에도 효과적인 활동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래는 언어적인 인지영역과 음악이 가진 감정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자기표현을 풍부하게 하며 감정과 생각의 변화를 좀 더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정현주, 2015). 노래중심 음악치료에서 사용한 노래는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강점 찾기, 감사 표현하기, 공감하기 등 긍정적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노래의 가사와 음악적인 요소들이 감정을 자극하여 생각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긍정성 영역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회복탄력성 중 통제성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청소년 시기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허용하며 세션을 진행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철학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내담자 중심인 세션을 진행하면서 그룹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조율할 수 있었으며 개인이 처한 내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자에게 의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인 환경은 개인의 정서, 감정,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율성은 청소년의 통제력을 기르는 바탕이 될 수 있다(김주환, 2011). 통제성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서 통제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자율성을 바탕으로 통제성을 기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음악치료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한 여정운(2012)의 연구와 인지-행동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켰다는 김희연(201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매 회기 주제로 사용했으나 기존 연구와 다르게 재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였으며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중 노래를 다각도로 사용하여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을 적용하

였다. 기관 특성상 연구에 참여하는 집단 인원수와 학년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저소득층 청소년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험-통제집단의 인원수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선정하여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증진 시킬 수 있다(김주환, 2011; 최성애, 2014). 본 연구의 12회기 세션 동안에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복탄력성의 내적 자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장기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요소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부 록

활동 자료 예시안 긍정성 : 생활 만족도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정혜선, 정다운 작사
정다운 작곡
제이레빗 노래
박지영 개사

A A+ F#m Em7 Em
들어봐 O O 와 O - O 이 날 위한 - 사 람 - 오 좋

5 Bm C#m7 D/G D/E E
아 해 - -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 우 리 가 - 족

9 A DmM7 Dm6 C#m7 Am/C
만 족 해 O O O O - O O O O - 우 리 학 교 - - 즐

13 Bm7 C#m7 F#m7 A/G G D/E A
겨 - 봐 O O O O O O O O - O O O - 바 로 날 - 위 한 우 리 동 네

들어봐, _____ 와 _____ 날 위한 사람, 오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2명)

좋아해, _____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의 장점, 자랑하고 싶은 점, 좋은 점)

만족해, _____ 우리 학교
(우리 학교의 장점, 자랑하고 싶은 점, 좋은 점)

즐거봐, _____ 바로 날 위한 우리 동네
(우리 동네의 장점, 자랑하고 싶은 점, 좋은 점)

참고 문헌

- 구진순(2011). 자각중심 문화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불안과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2014).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 청소년의 중독성 및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경기도: (주)위즈덤하우스.
- 김희연(2014). 인지-행동 음악활동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노혁(2007). 청소년 복지론(2판). 서울: 교육과학사.
- 류경빈(2014). 국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음악 선호도 및 활동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인숙(2013). 집단음악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회복 탄력성과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아(2005).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여정윤(2012). 음악치료활동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21-40.
- 이대성(2013). 태권도수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2005). 게임 중독 청소년의 충동성과 불안 감소를 위한 노래 만들기 기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해주(2009). 집단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보육 시설 청소년의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정(2009).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영(2015). 집단 음악치료가 평생교육원에 재학 중인 중년여성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인지 및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정(2011). 도예작업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

- 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 외(2006). 노래심리치료, 최미환(편), 음악치료 기법과모델. 서울: 학지사.
- 정현주, 김동민(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정현주(2011). 인간행동과 음악; 음악은 왜 치료적인가. 서울: (주)학지사.
- 정현주(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2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최성애(2014).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탄력성. 서울: 해냄.
- Anthony, E. J.(1987).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n overview. The invulnerable child.* New York: Guilford Press.
- Baker, F. & Wigram, T.(2008). 치료적 노래 만들기; 음악치료의 임상 및 교육을 위한 지침서. 최미환(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5 출판).
- Grocke. D. & Wigram, T.(2011). 음악치료 수용기법; 음악치료 교육 및 임상을 위한 지침서. 문소영, 이윤진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 출판).
- Mcferran, K.(2012). 청소년 음악치료: 임상 및 교육을 위한 방법. 최미환, 홍인실, 장은아 (역). 서울: (사)희망예술기지. (원저 2010 출판).
- Nicholson, J. & Clarke, J.(2010). 더 높이 뛰어오르는 공처럼. 노혜숙(역). 서울: 오피스. (원저 2010 출판).
- Reivich, K. & Shatté, A.(2012). 절대회복력; 피할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내는 7가지 회복력 기술. 우문식, 윤상운 (역). 안양: 풀푸레. (원저 2002 출판).
- Werner, E. E., & Smith, R. S.(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 McGraw Hill.

〈Abstract〉

The Effects of Song-Focused Music Therapy on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Park, Ji-Young · Moon, So-Young

Good Neighbors Psychological Therapy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ng-focused music therapy on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A clinical research was conducted with 7th and 8th grade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of Gyeonggi Province who regularly visit Youth Cultural Center. A total of 15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ither an experimental group(8 participants) or a control group(7 participants).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no specific treatment was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total of 12 clinical sessions, once or twice a week for 40 minutes each session.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before and after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program. Relating to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lyrics written by the participants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enhanced resilience scor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articularly, a significant result was found in sociality ($p<.040$) as well as in relationship part ($p<.005$) in detail factor. The score of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for positivity and control, although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pre-to posttest in positivity ($p<.036$) and sociality ($p<.035$), as well as in gratitude ($p<.030$). Overall,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song-focused music therapy has a positive effect toward the improvement in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Key words : The Song-Focused Music Therapy,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Resilience, sociality, positivity, control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김문정*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및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본은 서울 및 경기도와 천안 지역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상담하는 1년 이상 경력의 아동상담자 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SPSS 18.0을 사용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t 검정과 F 검증을 사용하였다. 셋째,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정서지능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열의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지능과 직무열의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아동상담자의 정서지능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아동상담자 정서지능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중재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상담자의 정서지능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열의 관계에서 열의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중재하는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을 논의하였다.

핵심어 : 아동상담자,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정서지능, 직무열의

* 본 연구는 김문정(2012)의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및 직무열의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김문정(manse05@naver.com)

■ 게재 신청일 : 2016년 6월 27일 ■ 최종 수정일 : 2016년 8월 14일 ■ 게재 확정일 : 2016년 8월 16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상담자는 지금-여기의 상담과정 안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동상담은 성인 상담과 다르게 요구되어지는 몇 가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와의 관계, 아동이 처한 환경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성인처럼 언어적인 접근보다 비언어적인 접근이 요구 되어 지기 때문에 아동이 주는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아동이 호소하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많은 정보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이해와 다양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아동상담자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담아동에게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부모교육과 업무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쏟게 된다. 상담 및 업무환경 변인 중 심리적 소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상담수입, 업무과다, 소속기관의 여부, 직위, 주당 사례 수, 역할갈등, 이론적 접근방식, 역할 모호 순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박희현, 김광웅, 2006). 아동상담자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지 않으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 소모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된다(윤은주, 2007). 그 결과로 Maslach(1982)은 상담자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이 내담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하며, 상담에서 아무런 만족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심리적 소진이라 말하며, 과도한 업무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다 써버리고 지쳐서 허탈하게 되거나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소진의 발생 과정을 보면, 직무 긴장에 대해 전문가의 태도와 행동이 점차 부정적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부정적 경험을 피하기 위해 자기보호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윤아랑, 정남운, 2011).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연구 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Wilkerson(2009)이 심리적 소진을 유발 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 가운데 아동상담자와 청소년 동반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환경 스

트레스가 소진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며(최진혜, 강현아 2012; 설경옥 임정임, 2013),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שמ, 최한나, 2012). 선행연구들을 통해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과 관련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이해하는 모형으로 Demerouti 및 그의 동료들(2001)은 다양한 직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원보존이론에 기초한 직무요구-자원모형(job demands-resources model)을 제안하였다. 이모형은 소진이 작업특징들의 두 가지 범주 즉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에 대한 결과로 간주하고 요구 및 자원을 통해 소진이 일어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조직에서의 소진현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박동수, 홍춘철, 정성한, 2007). 직무요구-자원모형에서 직무요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반면에 직무자원은 개인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직무자원은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여 열의를 높이고, 과업성과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van dan Broek et al., 2008). 또한 직무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의 목표 성취감과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동기화 과정을 유발하여 직무열의를 증가 시킨다(Schaufeli, Bakker et al., 2009). 직무열의는 심리적 소진과는 달리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상태로서,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대두되고 있다(Schaufeli & Salanova, 2005). 지금까지 연구는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 심리적 소진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일을 활력 있고, 즐겁게 하며, 직무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시각인 직무열의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되고 있다(조은애, 2011). 또한 선행연구 신강현, 오인수(2004)는 심리적 소진과 직무 열의의 직무 효과성 변수들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했을 때 직무 열의가 심리적 소진보다 더 높은 예측 타당도를 가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직무불만족, 이직 의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직무 열의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직무열의가 상담에 대한 열의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과정인 것에 비해 아동상담자 및 상담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다른 직업 영역인 호텔 종사자, 공무원, 커피종사자, 승무원, (김희진, 현성협, 김인신, 2013; 김정숙, 김성중, 2015; 김유경, 2015)등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직무 열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 두 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게 되면서, 두 변인과 연관된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통해 설명해 보았다.

직무요구-자원모형에서 ‘직무자원’은 종업원의 성장과 학습,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율성, 개인적 성장, 관계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Deci & Ryan, 1985). 직무요구-자원 모델에 의하면, 기존의 직무자원 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원 또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이철희, 신강현, 허창구, 2012). 그리고 Albrecht(2010)의 연구에서 자기 존중감, 자기효능감, 통제 소재, 정서 인지 및 조절 능력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직무열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변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 직무태도,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격 변인이 있다. 성격적 특성에는 A형 성격유형, 낮은 자아 존중감, 외부 통제 소재, 회피적 대처양식, 신경증 성향, 역기능적 완벽주의, 낮은 자기위로 능력, 영적 안녕감, 상담자 발달 수준 등이 있다고 한다(윤아람, 정남운, 2011). 이렇게, 개인의 내적 특성들이 정서적 스트레스가 되는 외적 요인들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Maslach, 1982). 그리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고, 내담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담이론이나 기법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다(Skovholt, 2001). 그렇기에, 상담자의 개인적 자원 중, 상담에서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서적인 능력은 상담자가 갖는 관계적 기술뿐만 아니라 내담자-상담자의 작업동맹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리고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에서의 질과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정서적 연결의 질은 상담자의 정서지능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임전옥, 장성숙, 2015). Slaki와 Cartwright(2002)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정서지능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

본 연구는 아동상담자가 비슷한 환경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어떤 아동상담자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극복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아동 상담자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리적 소진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개인적 자원인 정서지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상담자의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심리적 소진의 예방과 감소에 도움을 주며 직무열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상담자가 자신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도우며 내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가. 아동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

박희현과 김광웅(2005)은 아동상담자의 소진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이를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척도’라고 명명하였다. 의욕상실 척도는 5개의 하위요소로 추출하였다. 첫째, Maslach(1982)의 ‘정서적 소모’로 삶증남, 에너지 상실, 피로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느낌, 관심, 확신, 흥미, 기백의 상실 등을 뜻 한다. 둘째, 직업적 회의로 인한 좌절감으로 형성되는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자세’이다. 상담자가 하는 일이 더 이상 내담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게 되면서 소진을 경험하는 것이며, 자신감 상실, 낮은 사기,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와 상담자라는 직업선택에 대한 후회와 갈등을 뜻하기도 한다. 셋째,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써,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직·간접적인 회피와 거부 등을 나타낸다. 넷째,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으로 아동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이 그 가족이나 동료 집단 그밖에 다른 대인관계 등으로 확대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 요소로 ‘신체화 증상’은 의욕 상실을 경험할 때 보이는 육체적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 등을 나타낸다.

나. 직무열의 직무자원 - 요구 모형

직무요구-자원모형은 직무소진 및 직무열의의 그리고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이기철, 윤동열 2015). 먼저 ‘직무요구’는 작업자의 물질적, 심리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 환경이 자극을 의미한다. 작업부하와 비호의적인 물리적 환경, 불규칙한 작업 시간 등이 이에 속한다. ‘직무자원’은 작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직무요구와 연관된 생리적, 심리적 비용을 줄이며, 개인의 성장과 학습 및 개발을 자극하는 직무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혹은 조직적 측면의 요인들을 말한다. 직무자원은 직무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기를 강화하고 일과 관련된 개인적 권리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obofall, 2002).

최근 직무요구-자원모형에 기반 한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직무자원의 제공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열의를 가지고 헌신하고 또 자기 일에 열중해 가는 ‘과업몰입’ 개념을 새롭게 도입, 측정해 가고 있는 경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Bakker et al, 2008; de Lange et al, 2008; Halbesleben & Wheeler, 2008 등).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다양한 직무자원 요인들은 단순히 직무소진 등 과중한 직무요구의 부정적인 영

향을 완화시키는 재할과정을 넘어, 구성원에게 자신의 직무에 헌신하고 몰입해 갈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과정도 가능하게 해 준다. 직무요구-자원 모델에 따르면 직무요구, 즉 일의 과부하는 소진과 관련되고, 직무자원 즉 직무통제 및 피드백의 활용, 배움의 기회 증진 등은 직무열의와 관련되어 있다(Maslach 등, 2001).

직무 열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활력, 업무에 대한 열정과 헌신, 업무활동에 대한 몰두의 세 가지 동기적인 구성 개념을 갖는다. 열의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을 활동적이고 만족스러운 수행으로 연결하는 자아의 표현과 활용으로(Kahn, 1990), 직무열의는 업무에 대한 긍정적이고 정력적이며 헌신하고 몰두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할 수 있다(Schaufeli, Salanova, González-Romá, & Bakker, 2002). Bakker Geurts(2004)는 직무열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발휘하고 활력을 느끼며, 업무에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여 일하며,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며 일과 하나가 되는 몰입 경험으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다. 정서지능

“정서지능”이라는 단어를 1990년에 Salovey와 Mayer가 최소로 합성하여 만들어 사용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 후에, 1997년에 Mayer와 Salovey가 다시 정서지능을 ‘자기와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인식, 동화, 이해, 정서관리로 구성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정서지능의 네 가지 하위차원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조망수용’으로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개인의 기술을 말한다. 둘째, ‘타인 정서 조절’ 기술이며, 셋째, ‘자기 정서 조절’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다루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정서 활용’ 기술이 정서지능을 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서지능은 좌절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시키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하며 기분 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면서 타인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이라고 한다(이지영, 지진호, 2007).

실증적 연구들은 정서지능이 인지능력이나 성격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구성 개념이며(김천석, 유태용, 2005),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과업수행과 직무 스트레스를 포함한 적응수행을 예측함에 있어서 인지능력과 성격이 설명하지 못한 변량을 설명함을 밝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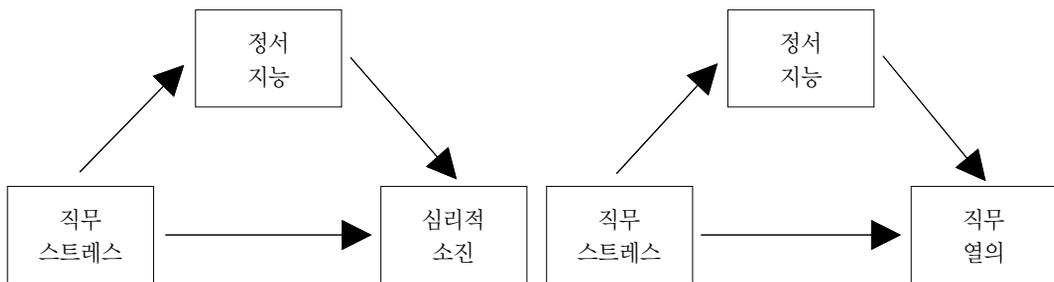
다. 즉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서적 안정과 지원 방안 중의 하나로 정서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상담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직무열의, 정서지능 변인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 연구문제 4.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3. 연구모형



〈그림 1〉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정서지능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그림 2〉 직무스트레스, 직무열의, 정서지능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 천안 지역의 전문 아동 및 청소년 상담실, 소아정신과,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아동상담자를 선정하였다. 1-2년 사이에 소진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이론에 근거(Freudenberger, 1975)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며, 심리 치료적 접근을 사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아동상담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2년 4월 9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23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직접 질문지 배포, 우편 발송,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약 230부 배포하였으며, 총 196부 중 실제분석에서 192부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심리적 소진 척도

아동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박희현과 김광웅(2005)이 Maslach, Jackson(1981)의 이론을 근거로 개발한 아동상담자 의욕상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개의 하위구조를 가지며,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정서적 소모 11문항, 직업적 회의 13문항,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4문항,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5문항, 신체화 증상 5문항이다. 하위요인 중 상담의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에서 역 문항 32, 33에서 신뢰도를 낮아 하위요인에서 제외 시켰다. 이는 박현숙, 이영애(2009) 연구에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변인을 제거 하였다고 한다. Cronbach α 는 정서적 소모 .93, 직업적 회의 .90,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74, 신체화 증상 .87이며 전체 .95로 나타났다.

나.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은 Wong와 Law(2002)가 개발한 WLEI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WLEIS는 .Salovey와 .Mayer가 제안한 정서지능의 능력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측정 도구는 4개의 하위구조를 가지며 총 16문항으로 각각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하위요

인은 자기정서 이해, 타인감성 이해, 정서 조절, 정서 활용이다. Cronbach α 는 자기정서인식 .82, 타인정서인식 .83, 정서활용 .76, 정서조절 .84, 전체 .83으로 나타났다.

다. 직무스트레스 척도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김지연(2002)의 놀이치료자의 직무스트레스 질문지를 소혜정(2005)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총 28문항이며, 직무관련 요인(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업무과다, 직무특성)에 관한 문항이 13문항, 근무환경 요인(근무조건- 물리적 환경, 검사도구)에 관한 문항이 4문항, 전문성신장 요인(수퍼비전 및 능력개발의 기회)에 관한 문항이 3문항, 경제적 요인(보수, 관련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관한 문항이 4문항, 대인관계 요인(상급자, 동료, 내담자의 관계)에 관한 문항이 4문항이다. Cronbach α 는 직무관련 .86, 직무환경 .72, 전문성 .68, 경제요인 .54, 대인관계 .69, 전체 .87로 나타났다.

라. 직무열의 척도

직무열의의 측정은 Schaufeli와 동료들(2003)이 개발한 직무열의척도(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를 이랑(2006)이 번안하였고, 이를 정혜연(2008)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직무열의의 하위요소인 활력, 헌신, 몰두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활력 6문항, 헌신 5문항, 몰두 6문항으로 총 1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헌신의 7번 문항이 신뢰도가 낮아 이 문항을 제거한 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Cronbach α 는 활력 .79, 헌신 .78, 몰두 .68, 전체 .82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네 가지 변인의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t 검증과 F 검증을 사용하였다. 셋째, 척도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보다 줄어들어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부분매개효과, *partial mediating*),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 매개효과 (*complete mediating*)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에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183명(95.3%), 연령별로 30~34세가 49명(25.5%)으로 가장 많았다. 혼인여부는 미혼이 100명(52.1%)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석사수료 및 졸업한 응답자가 115명(59.9%)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경력별로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75명, 39.1%), 치료적 방법으로는 일반 상담 69명(35.9%)로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소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t=12.79, p>0.1$)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직무열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심리적 소진($F=2.88, p>0.5$)이 점차 감소하고 직무열의($F=3.04, p>0.1$)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따라 미혼 보다 기혼($t=4.25, p>0.5$)인 경우 심리적 소진이 유의미하게 낮으며, 직무열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에 경우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경력이 많을수록 심리적 소진($F=3.97, p>0.1$)과 직무열의($F=3.76,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감소하고 직무열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방법에서는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

(N= 192)

구분		N(%)	심리적 소진M(SD)	직무열의M(SD)
성별	남	9(4.7)	72.78(18.78)	53.89(8.10)
	여	183(95.3)	92.63(20.54)	54.31(6.91)
	<i>t</i>		12.79**	-2.78
연령	20~24세	2(1.0)	93(22.63)	57(7.07)
	25~29세	44(22.9)	100(23.55)	52.66(7.60)
	30~34세	49(25.5)	94.49(19.75)	52.14(6.20)
	35~39세	34(17.7)	89.82(22.10)	54.32(7.85)
	40~44세	45(23.4)	86.30(17.87)	56.89(5.84)
	45~49세	8(4.2)	82.63(16.93)	56.75(7.29)
	50세 이상	10(5.2)	78.70(8.09)	57.70(3.56)
	<i>F</i>		2.88*	3.04**
혼인	미혼	100(52.1)	97.52(22.19)	53.23(7.30)
	기혼	91(47.4)	85.09(17.26)	5.46(6.41)
	<i>t</i>		4.25*	-2.25
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	19(9.9)	93.68(21.03)	55.37(7.39)
	석사 과정	44(22.9)	94.83(20.73)	53.30(7.32)
	석사	115(59.9)	90.68(21.44)	54.09(6.88)
	박사과정	4(2.1)	95.25(23.63)	53(3.46)
	박사 수료	3(1.6)	85.33(10.07)	62.33(1.15)
	박사 이상	5(2.6)	79.00(6.32)	58.40(4.62)
	<i>F</i>		.72	1.48
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75(39.1)	95.90(24.21)	53.63(7.61)
	3년 이상 ~ 5년 미만	54(28.1)	95.02(19.34)	52.30(6)
	5년 이상 ~ 7년 미만	27(14.1)	87.04(17.08)	56.26(7.28)
	7년 이상 ~ 9년 미만	10(5.2)	86.40(14.51)	55.70(6.22)
	9년 이상	26(13.5)	79.65(13.02)	57.77(4.95)
	<i>F</i>		3.97**	3.76**
치료방법	놀이치료	66(34.4)	94.32(21.78)	53.82(7.38)
	미술치료	39(20.3)	89.34(19.42)	55.74(7.65)
	치료놀이	2(1.0)	86(9.90)	58(2.83)
	일반 심리상담	69(35.9)	92.48(22.13)	53.45(6.23)
	음악치료	16(8.3)	83.25(13.25)	55.88(6.32)
	<i>F</i>		1.10	1.11

※ **p*<.05, ***p*<.01, ****p*<.001

2.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표 2>에서 네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r=.58, p<.01$)이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열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37, p<.01$)이 나타났다.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r=-.52, p<.01$)이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r=-.24, p<.01$)이 나타났고, 심리적 소진과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r=-.48, p<.01$)이 나타났고, 직무열의와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r=.53, p<.01$)이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정서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매개분석 시 제외 하였다.

<표 2> 상관분석 결과

	1	2	3	4	1-1	1-2	1-3	1-4
1. 정서지능	1.00							
2. 심리적 소진	-.48**	1.00						
3. 직무스트레스	-.24**	.58**	1.00					
4. 직무열의	.53**	-.52**	-.37**	1.00				
4-1. 자기정서인식	.73**	-.36**	-.14*	.32**	1.00			
4-2. 타인정서인식	.54**	-0.13	-0.05	.16*	.32**	1.00		
4-3. 정서활용	.68**	-.38**	-.24**	.51**	.35**	.15*	1.00	
4-4. 정서조절	.68**	-.36**	-.19**	.38**	.33**	0.11	.25**	1.00

※ * $p<.05$, ** $p<.01$, *** $p<.001$

3. 매개효과 검증

가.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지능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직무스트레스 영향력은 유의하였고($\beta=0.58, p<.001$),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였다($\beta=-0.25,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심리적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0.36, p<.001$).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sobel test 결과($Z=3.79,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지능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R ²	F
1단계	심리적소진	직무스트레스	0.99	0.10	0.58	9.73***	0.34	94.60***
2단계	정서지능	직무스트레스	-0.11	0.03	-0.25	-3.48**	0.06	12.14**
3단계	심리적소진	직무스트레스	0.85	0.10	0.50	8.89***	0.46	78.94***
		정서지능	-1.41	0.22	-0.36	-6.55***		

※ * $p<.05$, ** $p<.01$, *** $p<.001$

나.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지능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0.38, p<.001$),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0.25,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직무열의를 종속변인으로 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0.47, p<.001$).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sobel test 결과 ($Z=5.36,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지능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R ²	F
1단계	직무열의	직무스트레스	-0.21	0.04	-0.38	-5.60***	0.14	31.36***
2단계	정서지능	직무스트레스	-0.11	0.03	-0.25	-3.48**	0.06	12.14**
3단계	직무열의	직무스트레스	-0.15	0.04	-0.26	-2.23***	0.35	50.38***
		정서지능	0.61	0.08	0.47	7.78***		

※ * $p<.05$, ** $p<.01$, *** $p<.001$

다.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매개로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인식 하위요인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상관분석 결과 상

관이 나타나지 않아 매개 분석 시에 제외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로 정서지능의 자기정서인식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0.58, p<.001$), 매개변수인 자기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0.15,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0.30, p<.001$). 자기정서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정서지능의 정서활용의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0.58, p<.001$), 매개변수인 정서활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0.25,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0.27, p<.001$). 정서활용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의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인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0.58, p<.001$), 매개변수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0.19,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0.26, p<.001$). 정서조절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매개로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R ²	F
1단계	심리적소진	직무스트레스	0.99	0.10	0.58	9.73***	0.34	94.60***
2단계	자기정서인식	직무스트레스	-0.02	0.01	-0.15	-2.04	0.02	4.15*
3단계	심리적소진	직무스트레스	0.92	0.10	0.54	9.62***	0.43	68.75***
		자기정서인식	-3.50	0.65	-0.30	-5.36***		
1단계	심리적소진	직무스트레스	0.99	0.10	0.58	9.73***	0.34	94.60***
2단계	정서활용	직무스트레스	-0.04	0.01	-0.25	-3.48	0.06	12.12**
3단계	심리적소진	직무스트레스	0.88	0.10	0.52	8.87***	0.41	63.47***
		정서활용	-2.61	0.56	-0.27	-4.66***		
1단계	심리적소진	직무스트레스	0.99	0.10	0.58	9.73***	0.34	94.60***
2단계	정서조절	직무스트레스	-0.04	0.01	-0.19	-2.69**	0.04	7.21**
3단계	심리적소진	직무스트레스	0.91	0.10	0.53	9.22***	0.41	62.84***
		정서조절	-2.35	0.51	-0.26	-4.57***		

※ * $p<.05$, ** $p<.01$, *** $p<.001$

라.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정서인식과 직무열의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직무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로 정서지능의 자기정서인식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0.38, p<.01$), 매개변수인 자기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0.15,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0.28, p<.001$),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직무스트레스만 포함한 경우에 비해($\beta=-0.38, p<.001$), 자기정서인식을 포함한 경우($\beta=-0.34, p<.001$)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정서인식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열의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정서지능의 정서활용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0.38, p<.001$), 매개변수인 정서활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0.25,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0.45, p<.001$). 정서활용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열의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의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0.38, p<.001$), 매개변수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0.19, p<.001$).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지능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0.32, p<.001$). 정서조절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열의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t	R2	F
1단계	직무열의	직무스트레스	-0.21	0.04	-0.38	-5.60***	0.14	31.36***
2단계	자기정서인식	직무스트레스	-0.02	0.01	-0.15	-2.04***	0.02	4.15***
3단계	직무열의	직무스트레스	-0.19	0.04	-0.34	-5.16***	0.22	26.15***
		자기정서인식	1.07	0.25	0.28	4.25***		
1단계	직무열의	직무스트레스	-0.21	0.04	-0.38	-5.60***	0.14	31.36***
2단계	정서활용	직무스트레스	-0.04	0.01	-0.25	-3.48***	0.06	12.12***
3단계	직무열의	직무스트레스	-0.15	0.04	-0.27	-4.34***	0.33	46.86***
		정서활용	1.45	0.20	0.45	7.32***		
1단계	직무열의	직무스트레스	-0.21	0.04	-0.38	-5.60***	0.14	31.36***
2단계	정서조절	직무스트레스	-0.04	0.01	-0.19	-2.69***	0.04	7.21***
3단계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0.18	0.04	-0.32	-4.88***	0.24	30.05***
		정서조절	0.95	0.19	0.32	4.98***		

※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요인들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심리적 소진이 더 많이 되며, 기혼인 경우에 심리적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심리적 소진이 점차 감소하고 직무열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쌓일수록 심리적 소진이 감소하고, 직무열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지능, 심리적 소진, 직무열의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조은애, 2011; 이שמ, 2011; 최진혜, 강현아, 2012; 김다인, 이소연, 2016)를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하였다. 반면에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열의는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즉, 직무스트레스 낮을수록 직무열의를 높이는 방향으로(최진혜, 강현아, 2012, 김보람, 박영숙, 2012, 조은애, 2011) 나타나는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며, 본 논문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가 보였다. 그리

고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과 심리적 소진, 직무열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인식을 제외한 자기정서 인식, 감정 활용, 감정조절은 심리적 소진과는 부적 상관을 직무열의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소진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선행연구에서 보면,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최가람(2010)은 긍정적 감정관계는 소진과 부적상관을 가지며, 부정적 감정관계는 소진과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윤정임과 정남운(2009)은 상담자를 대상의 연구에서 낙관성과 소진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소진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소진은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박지영(2010)은 정서표현능력보다 정서인식능력이 심리적 소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정서지능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봤을 때, 개인적인 변인인 강인성과 낙관성,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 마음챙김(최혜진, 강현아, 2012; 진두찬, 손은정, 2015; 최유미, 2015) 등이 직무열의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신의 업무에 더 활력을 느끼며, 헌신하고, 몰두 할 수 있게 함으로 긍정적 업무효과를 높일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상담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직무열의를 촉진하는데 개인적인 변인인 정서지능이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바탕으로 아동상담자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이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정서 인식, 정서활용, 정서조절로 나타났다. 아동상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성과와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발달할수록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Cooper와 Sawaf(1997)는 정서가 풍부한 상태 즉, 원기왕성 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며, 이런 정서 상태에서 성과에 대한 요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역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 상태에서는 성과에 대한 인지적인 기능을 제한시킨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와 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응자원이 될 수 있다(김정은, 2011; 조혜진, 김수연, 2011). 하위요인 중 정서활용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소진을 경감 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는 스트레스 교류모형의 관점에서 정서활용능력이 주어진 맥락에서 개인의 적응에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Matthews et al, 2004). 또한 정서활용과 정서표현을 더 잘 할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다는 김경숙(2003)의 연

구와도 일치한다. 정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것을 느끼는 때를 알아채고 감정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상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감정과 사고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며 자신의 개인적 문제와 대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아동상담의 장면에서 아동 상담자는 아동의 행동과 말하는 것에 적극적이며 민감함과 반응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서지능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는 좌절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동기화 시킬 수 있고 충동과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바탕으로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아동상담자가 개인 내적인 변인인 정서지능의 능력을 높여 줄 때, 직무열의가 강화되고 상담에 보다 열중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활용이 직무열의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난기(2011)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으면 표면행동이 활력과 헌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내면행동이 활력과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높으면 활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심리적 소진을 낮추는 방향보다 직무열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줄이기 위한 방향보다 직무열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방과 개선책을 높일수록 상담과정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천안 지역의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자의 분포가 대부분이 여성 상담자였기 때문에 여성상담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정서지능의 다른 하위요인 보다 정서활용이 심리적 소진을 낮추고 직무열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민감하고 일방적인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기에 정서지능 중 정서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상담자의 정서지능과 그 중의 정서활용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Ciarrochi, Forgas, Mayer(2005)가 정서지능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침들 중에서 경험연습과 사례연구, 역할극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것은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

서 정서지능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정서지능 외에도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다면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넷째, 상담자의 정서지능에 관련된 연구는 상담자의 정서적 능력이 갖는 중요성과 상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Rieb(2005)는 상담의 효율성을 예측하기 위해 정서지능을 사용한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한다. 상담자가 정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들이 사실상 적은 실정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아동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는 설문지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척도의 역 문항 32, 33번 2개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 제외되었다. 추후연구에서 심리적 소진 하위요인 척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아동상담자의 대상 아동의 특성과 사례 수, 업무량 등에 대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추후 연구에서 반영되어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김다인, 이소연(2016). 놀이치료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기돌봄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9(1), 21-34.
- 김보람, 박영숙(2012). 초등학교사의 직무환경과 직무열의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스트레스研究, 20(3), 199-208.
- 김유경(2015).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열의, 직무소진, 그리고 정서적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외식경영연구, 18(6), 277-300.
- 김정숙(201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은(2011).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3). 놀이치료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천석, 유태용(2005). 정서지능, 인지능력, 성격의 구성개념간의 변별성과 정서지능의 과업수행, 맥락수행, 적응수행에 대한 증분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2), 271-298.
- 박동수, 홍춘철, 정성한(2007). 소진의 직무요구-자원모형에서 감성지능의 조절역할. 조직과인사관리연구, 31(1), 69-94.
- 박지영(2010). 아동상담자의 성격특성, 정서능력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이영애(2009). 놀이치료자의 5요인 성격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35-47.
- 박희현(2005).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burnout) 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현, 김광운(2005).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측정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39-56.
- 박희현, 김광운(2006).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에 대한 상담자 개인적 특성의 영향. 아동학회지, 27(3), 29-51.
- 설경옥, 임정임(2013). 청소년동반자의 직무환경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187-201.

- 소혜정(2005).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강현, 오인수(2004).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예측시 직무열의의 중요성.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244-245 부산대학교, 부산.
- 윤아람, 정남운(2011). 상담자 소진: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31-256.
- 윤정임, 정남운(2009). 낙관성, 인지적 정서조절 및 상담자 소진의 관계. 한국상담심리학회지, 21(1), 49-68.
- 이기철, 윤동열(2015). 직무요구-자원모형을 활용한 직업상담사의 직무소진 및 업무열의에 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22(5), 169-186.
- 이랑(2006). 직무탈진과 직무열의의 요구-자원 모델에서 정서노동전략의 역할: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שמ, 최한나(2012).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 人間理解, 33(1), 123-137.
- 이영란(2006). 상담자 소진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지진호(2007). 직무요구-소진과정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관광업체 종사원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4(4), 277-294.
- 임전옥, 장성숙(2015). 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491-518.
- 정혜연(2008). 내적 통제 소재와 직무 열의의 관계 연구: 사회적 교환 관계와 조직 기반 자긍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애(2011). 상담자의 직무환경과 심리적 소진 및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소명의식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 김수연(2011).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231-247.
- 최가람(2010).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혜, 강현아(2012). 아동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적 자원이 소진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5), 231-252.
- Albrecht, S, L.(2010). *Handbook of Employee Engagement: Perspective, Issues, Research and Practice, Gols*. England: Edward Elgar Publishing.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kker, A. B. & Geurts, S.(2004). Toward a dual-process model of work-home interference. *Work and Occupations*, 31, 345-366.
- Bakker, A. B., W. B. Schaufeli., M. P. Leiter. & T. W. Taris.(2008), Work engagement: an emerging concept in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Work and Stress*, 22, 187-200.
- Cooper, R. K. & Sawaf, A.(1997). *Executive EQ: Emotional Intelligence in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New York: Grosset / Putnam.
- Deci, W. L. & R. M. Ryan.(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York : Plenum.
- Demerouti, E., Bakker, A. B., de Jonge, J., Janssen, P. P. & Schaufeli, W. B.(2001). Burnout and engagement at work as a function of demands and control.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7(4). 279-286.
- Hobfoll, S. E.(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 307-324.
- Maslach, C. & Jackson, S. E.(1981).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aslach, C.(1982). *Burnout: The cost of caring*. New York: Prentice Hall.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397-422.
- Mayer, J. D. & Salovey, P.(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and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pp.3-31, New York : Basic Books.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chaufeli, W., Salanova, M., Gonzalez-Roma, V. & Bakker, A. B.(2002).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Th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71-92.
- Schaufeli, W. B., A. B., Bakker & W. Van Rhenen,(2009). How changes in job

- demands and resources predict burnout, work engagement, and sickness absenteeism.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 893-917.
- Schaufeli, W. B., & Bakker, A. B.(2003).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Preliminary manual.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Unit, Utrecht University, Utrecht*.
- Schaufeli, W. & Salanova, M.(2005). *Work engagement: An emerging psychological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Research in Social Issues in Management*, Vol. 5:Managing social and Etical Issues in Organizations.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ers.
- Slaski, M. & Cartwright, S.(2002), Health, performa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 exploratory study of retail managers. *Stress and Health*, 18(2), 63-68.
- Skovholt, T. M., T. L. Grier. & M. R. Hanson.(2001). Career counseling for longevity: self-care and burnout prevention strategies for counselor resili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167-176.
- Van den Broek, A. & M. Vansteenkiste. & H. De Witte. & W. Lens.(2008).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burnout and engagement: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Work and Stress*, 22, 277-294.
- Wong, C. & Law, K, S.(2002).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 Wilkerson, K.(2009). An Examination of Burnout Among School Counselors Guided by Stress-Strain-Cop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7(4), 428-437.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and
Job Engagement in Child Counselors :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im, Mun-Jeong · Yu, Kum-la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a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nvironmental features which are personal features of child counselors on job stress, burn-out and job engagement.

Questionnaire was performed by sampling child counselors with their career over 1 year who use psychological therapeutic approach by targeting the children below full 18 years old living in Seoul, Gyeonggi and Cheonan regions. 192 copies among these was used as a data for analysis. First, positive correlation was represented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and negative correlation was represented between job stress and job engagement. In addition, negative correlation was represented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burn-out and positive correlation was represented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engagement.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 counselors played a role of partial mediation in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Thir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 counselors played a role of partial medi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job engagement.

Key words : Child counselors, Psychological Burn-out, Job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Job engagement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안명란* · 홍혜영**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 간에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771명을 선정하여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의 부와 모를 통한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관계중독에 대한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와 모를 나누어 검증한 결과 부와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모와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는 모두 관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 간에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부와 모를 나누어 검증한 결과 부는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와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는 자기격려,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연구대상과 방법에 따라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는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 간에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핵심어 :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자기격려, 지각된 사회적 지지, 관계중독

* 본 연구는 안명란(2015)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6년 7월 03일 ■ 최종 수정일 : 2016년 8월 15일 ■ 게재 확정일 : 2016년 8월 17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가장먼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한다. 부모가 보여준 태도나 인품은 자녀의 지적·정서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이동영, 1997). 자신의 표상은 타인에 대한 상징성으로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Gregory, Landau, McCloskey, 2011; Wang, Doan & Song 2010).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생애초기에 겪었던 부모-자녀관계에서 결정되며(Painte, Nicetz & Bennett, 1997), 이후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이성 관계뿐 아니라 사회생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유외숙, 박경, 2004; Larson, Clote, Seeley, & Lewinson, 1999).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의 일차적인 욕구를 통해 형성된다(김선아 2005). Greenberg와 Mitchell(1983)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통해 정신세계를 형성하며, 이정립(2011)은 인간의 내면적 사고와 외부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한 관계는 사고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현실과 외적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김현택, 2009). 생후 첫 3~4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와의 관계는 심리적 구조를 발달시켜 성장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박경희, 2004). 하지만 일부 대학생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이성관계에 있어 관계중독과 같은 심리적 현상을 겪기도 한다(이은주, 2014). 그 중 하나가 관계중독이다. 관계중독은 과정 중독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관계라 하여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Martin, 1990). 스스로는 자신이 중독 상태인 것을 의식하지 않으며, 만성적, 고질적인 패턴으로 외부도움 없이는 벗어나기가 어렵다(Bradshaw, 2005).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듯 대학생들의 과정중독은 주목받고 있어 인과관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노안영, 정민, 2011; 박구연, 2002; 전효정, 2006; 진영희, 2002). 현실적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이슬, 권혁철(2015)은 전라북도 4개소재 대학생들을 통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관계중독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를 소개하였다. 4가지 하위요인중 하나인 자기애적 사랑중독(Narcissistic Love Addicts: NLAs)은 상대방의 행동을 수용하는 상호의존적인 중독과 달리 행복을 저해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몰두하는 내면에서 낮은 자존감을 나타낸다. 관계 내에서도 상대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한 행동을 보이는데 상대가 떠나려고 할 때 깊은 공황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

긍정 심리학이 주목받으면서 개인적응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기격려는 스스로에게 긍정적 기대를 주입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노안영, 정민, 2007). 자기격려의 하위요인인 행동측면은 외적형태로 나타난다. Dreikurs와 Soltz(1964)는 격려가 양육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결핍은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Dagley, Campbell, Kulic, & Dagley, 1999). Manaster와 Corsini(1999)에 의하면 격려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격려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와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전략 등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송다혜, 2010).

대인관계에서 부정과 긍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리학요소가 제시된다(김경호, 2012).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에서 논의되었던 성장과정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겨내면 대인관계나 사회적응력을 높여준다(기채영, 홍경자, 2008). 자신에게 긍정적 기대를 주입시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등 신념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김미란, 2006). 스스로 확신과 자신감을 강화해줌으로서 성장을 촉진시켜 자발적인 책임감과 자존감, 타인에 대한 협조, 믿음을 강화시킨다(노안영, 정민, 2007). 이은수(2011)와 김희숙(2014)은 부모와의 애착은 자기격려에 영향을 미치는데 격려기법을 강조한 김필진(2007)은 개인심리학에서 건설적인 심리상태를 강조하였다.

자기격려 수준이 높으면 우울성이 낮아진다(박은경, 2009). 가족 간 친밀함과 지속적인 교류, 자존감 회복, 자아발달에서(이은수, 2011), 혼자 있는 능력 중 자기격려 부재는 우울증이 된다(김희숙, 2014; Vardy, 2011).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받는 긍정적 자원을 사회적지이라 한다(Cohen & Hoberman, 1983). 신체적·심리적 통합을 유지하는데 개인의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홍애순, 2013). 안정된 애착관계를 보이는 성인은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성인에 비해 높게 지각한다. 하지만 불안정한 애착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Nemeroff, 1999; 신노라, 안창일, 2004). 이와 같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주관적 지지이라 한다.

사회적 지지는 학습자들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소연희, 2008).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에서(성선진, 2010), 사회조직과 같은 객관적인 측면과 지각된 지지, 주관적 지지로 구분된다(House, 1981). 타인으로부터 도움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해주는가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이지민, 2008). 사회적 지지는 어떻게 적응하여 수행되느냐 에서 자기존중과 평가, 소속감으로 소개된다(황보민주, 2010). 최근 MOS(Medical Outcomes Study)는 정서, 정보, 긍정, 사회, 상호작용, 애정적 지지로 제시하였다. 오승환(1990)은 물질, 정서, 정보로 보고 애착정도에 따라 지각수준은 차이가 있다(Blain, Thompson & Whiffen, 1993)하였다.

애착은 지지관계에서 긍정,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 회피하는 애착이 클수록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박은영, 2004). 불안정한 애착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도움 된다(김정은, 2007). 스트레스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은 학생은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비행행동이 적었으며, 위협상황에서도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숙, 2006). 손향숙(2005)은 따돌림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집단은 친구지지가 많았으며, 그 정도가 높을수록 따돌림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장애 및 아동은 사회적 지지를 높이 인식할수록 문제행동이 줄어들며(부경희, 2004; 장성숙, 2004), 대인관계에서도 불안감을 낮게 지각한다(신노라, 안창일, 2004).

자녀들은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희정, 2009). 남성육아휴직을 정부가 장려하면서 아이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76.4%),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효과(12%) 등 전체의 88.4%로는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용노동부, 2015). 아버지의 역할과 애착중요성이 부각되는 현대에 부모의 역할은 아동성장에 직접영향을 미친다(Clarke-Stewart, 1993). 하지만 부모애착이 아동성장과 발달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이희영, 최대진, 2007; 김현주, 2009). 이에 연구자는 영아와 아버지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제시한 Lamb, Hwang, Frodi & Frodi(1982)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애착은 자녀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erns & Barth, 1995)는 연구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부모와 남녀 학생 간 지각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영남, 2008; Bradshaw, J. 2005). Wallace & Vaux(1993)과 이현미(1996)는 영아-아버지의 애착유형 간에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선행연구자들은 어머니 애착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제시하였지만 아버지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아들과 부/모간의 관계중독에 따른 자기격려와 사회적 지지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양육은 부모의 서로 다른 역할과 애착에서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현주, 2009). 사회적 배경은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지각정도에서 성격, 명확성, 대인관계 등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백승진,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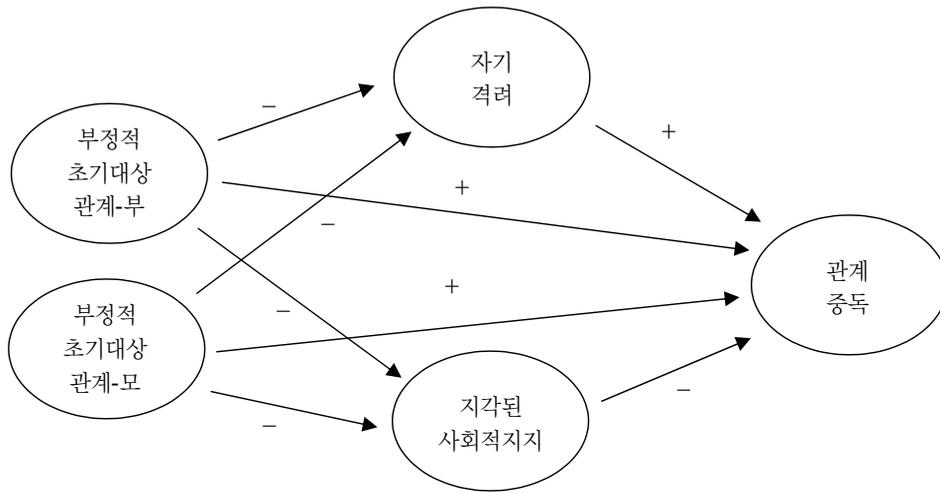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태도와 상호작용 방식은 성별에 따른 자녀가치관과 역할, 기대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등 참여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오현주, 이진희, 2013). 양육에서 남자 중학생은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을 높게 지각하지만 여중생은 부모의 감독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이예은, 2012). 남녀 대학생의 성격형성(박계란, 이지민, 2012)과 명확성(백승진, 2008)은 성별에 따라 양육에 차이가 있다(임정화, 전종설,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과의 상호작용은 선호여부를 약화시키며, 어머니의 애정표현은 딸이 아들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선이, 김현주, 이여봉, 2006). 아들이 딸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문수경, 2005). 대학 상담센터에 방문한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우울, 불안, 분노감정은 조절차원에서 대인관계 갈등, 학업 및 진로고민, 가족 및 성문제, 학교적응 등으로 분석되었지만 관계중독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담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는 이상 과정의 중독현상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김완석, 장미선, 2005).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관계중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 증가한다. 둘째, 관계가 중단되었을 때, 금단 증상을 겪는다(Wolfe, 2000). 셋째, 관계가 깨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을 느꼈던 대상과의 로맨스를 특정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 넷째, 중독된 행동을 끊거나 통제하더라도 끈질기게 요구하며, 계속 유지하려 한다(Weiss & Schneider, 2006). 다섯째,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여섯째, 사회적, 직업적, 창의적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게 된다. 일곱째, 지속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를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Fisher, 2006).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부목적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시절 형성된 부모와의 부정적 대상관계는 대학생들의 관계중독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김희숙, 2014; 이기학, 이지원, 2014; 이계선, 2013)은 성인애착과 관계중독 관련성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생애 초기의 부모와의 관계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둘째, 유년시절 형성된 부모와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대학생들의 관계중독은 자기격려가 매개하는지 검증한다. 셋째, 부모와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넷째, 어린시절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의 부/모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격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 및 설문자가 설명하는 자기 기입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8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부실한 기입과 응답에 오류가 있는 29부를 제외하고 총 77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성별로는 남자 358명(46.4%), 여자 413명(53.6%)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331명(42.9%)과 2학년 200명(25.9%), 3학년 119명(15.4%), 4학년 83명(10.8%), 무응답 38명(4.9%)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척도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nPORQ) 척도는 Benjamin(2000)의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분류기준을 기초로 국내에 도입한 김춘경(2006)연구를

참고하여 우상우(2012)가 제시한 초기 대상관계 단축판(nPORQ)을 참고하였다. 질문지는 어머니에 대한 33문항과 아버지에 대한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인 요인(인정)에 대해서는 역 채점을 실시하였다. 초기 대상관계는 0세-4세에 부모와의 형성된 관계이지만, 일반적으로 4세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관계로 5-10세의 기억을 토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다’ 100% 사이에 0에서 10점까지 Likert 척도로 실시하였다. 점수범위는 아버지: 0점~252점, 어머니 0점~29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대상관계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M-nPORQ(모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질문지)가 .96, F-nPORQ(부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 질문지)가 .95로 높게 나타났다.

나. 관계중독 척도

관계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RAQ-30)은 Susan(2011)이 개발한 중독적 관계를 참조하여 총 40개의 이성관계 문항들로 국내판 관계중독 질문지-30문항(RAQ-30)을 사용하였다. 초기 성인기 대상을 측정하는 실제 중독관계의 경험여부 10문항을 제외한 30개 문항을 담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점 범위는 30~150점까지로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는 .94로 나타났다.

다. 자기격려 척도

자기격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노안영과 정민(2007)이 개발한 자기격려-낙담 척도를 사용했다. 격려와 낙담관련 60문항에서 낙담 문항을 제외한 자기격려척도의 인지, 정서, 행동영역 30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30점에서 150점까지 설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격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라.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 & Cutrona(1980)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SPS)를 박지원(1985)과 유영란(2006)이 자신의 논문에 적용한 척도를 사용했다. 사회 지지망의 질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애착, 사회적 소속감, 돌봄의 기회, 가치 확산, 신뢰와 믿음, 조언 등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총 24문항 사용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소 24점~96점으로 2, 3, 6, 9, 10, 14, 15, 18, 19, 21, 22, 24번의 12개 문항은 역 채점 문항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점수범위는 24~96점까지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20.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 18의 기술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자기격려, 지각된 사회적 지지, 관계중독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녀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선헌당 방법으로 지표변수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과 변인 간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의 경로분석을 통해 최종모형을 설정하였다.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자기격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직접, 간접, 총 효과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간접 경로들의 개별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은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의 기초 자료인 성별에 따른 남·여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변인 기술통계치와 t검정 결과

연구대상	남(N=358)	여(N=413)	t
기술통계치	M(SD)	M(SD)	
연구변인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	2.79(1.64)	2.58(1.70)	1.56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모	2.18(1.59)	2.22(1.58)	-.26
자기격려	3.75(.59)	3.56(.55)	4.10**
지각된 사회적 지지	3.24(.42)	3.26(.39)	-.38
관계증독	2.17(.65)	1.92(.60)	5.02**

※ *** $p < .01$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의 모든 자기격려, 지각된 사회적지지, 관계증독에서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부와 모,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격려($t=4.10, p<.01$)와 관계증독($t=5.02, p<.01$)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높은 평균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결과변수 간 모형검증에 사용된 각 변인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의 부는 모($r=.53, p<.001$)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매개변수인 자기격려($r=-.21, p<.001$)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r=-.42, p<.001$)는 부의 초기 대상관계에서 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인 모는 매개변수인 자기격려($r=-.25, p<.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도($r=-.43, p<.001$)는 부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r=.25, p<.001$)와 모($r=.28, p<.001$)는 종속변수인 관계증독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매개변수인 지각된 사회적 지지($r=-.22, p<.001$)는 관계증독에 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자기격려와 관계증독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격려의 하위 변수중행동적 자기격려($r=.10, p<.01$)는 관계증독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변인이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자기격려($M=3.59$), 지각된 사

회적 지지(M=3.22)의 평균값은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중독(M=2.03)과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부는 M=2.63, M=2.18, 평균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기준치(왜도<2, 첨도<7)를 넘지 않아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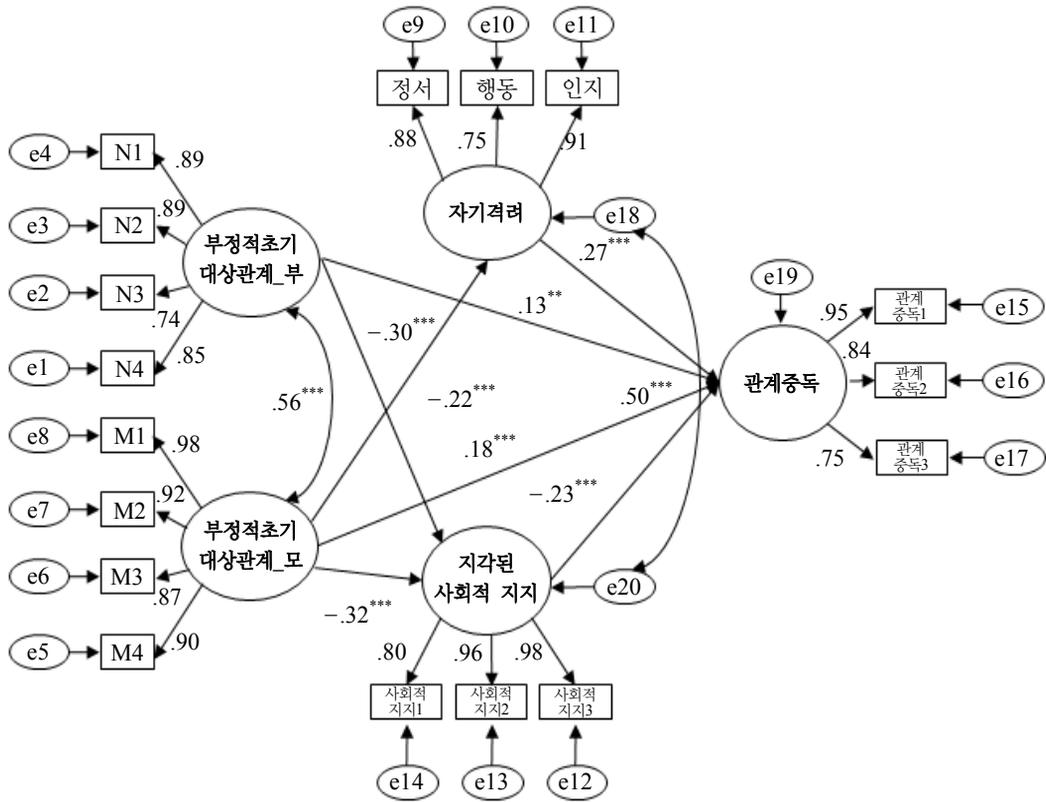
	1	2	3	3-1	3-2	3-3	4	5
1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 부	1							
2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 모	.53***	1						
3 자기격려	-.21***	-.25***	1					
3-1 인지적 자기격려	-.23***	-.28***	.92***	1				
3-2 행동적 자기격려	-.13***	-.13***	.87***	.69***	1			
3-3 정서적 자기격려	-.21***	-.28***	.91***	.80***	.65***	1		
4 사회적 지지	-.42***	-.43***	.55***	.51***	.45***	.51***	1	
5 관계중독	.25***	.28***	.06	.03	.10**	.03	-.22***	1
M	2.63	2.18	3.59	3.71	3.47	3.58	3.22	2.03
SD	1.66	1.58	.59	.63	.67	.67	.42	.65
왜도	.55	.88	.03	-.01	-.07	-.04	-.39	1.14
첨도	-.50	.27	.12	-.16	.05	.15	-.19	1.31

※ * $p < .05$, ** $p < .01$, *** $p < .001$

※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부=1,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모=2, 자기격려=3, 인지적 자기격려=3-1, 행동적 자기격려=3-2, 정서적 자기격려=3-3, 지각된 사회적 지지=4, 관계중독=5

2. 모형검증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자기격려, 사회적지지, 관계중독을 검증하기 위해 무선할당 방법(홍세희, 2009)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는 4개의 변수로 자기격려와 사회적지지, 관계중독은 3개변수를 사용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인 TLI와 CFI, 절대적합지수인 RMSEA를 이용했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TLI=.945, CFI=.961, RMSEA=.072로(신뢰구간 .066 ~.078)로 나타났으며, 측정 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 숫자는 표준화 계수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최종모형

부정적초기 대상관계와 자기격려, 지각된 사회적 지지, 관계증독의 최종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표 3>과 같다. 부와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22로 유의하였다.

〈표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채택여부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S.E	t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부	→ 지각된 사회적 지지	-.06	-.22	.01	-5.73***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 자기격려	-.12	-.30	.02	-7.84***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 지각된 사회적 지지	-.10	-.32	.01	-7.94***
자기격려	→ 관계중독	.33	.27	.06	5.84***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관계중독	-.35	-.23	.08	-4.67***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부	→ 관계중독	.06	.13	.02	2.79**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 관계중독	.08	.18	.02	3.68***

※ * $p < .05$, ** $p < .01$, *** $p < .001$

모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는 자기격려에 $-.30$ 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32$ 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기격려는 관계중독에 $.27$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관계중독에 $-.23$ 로 나타내고 있다. 부와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는 관계중독에 $.13$ 으로 관계중독에 $.18$ 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에서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에서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10,000개의 표본을 원 자료(N=771)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부	→	지각된 사회적 지지	-.22***		-.22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	자기격려	-.30***		-.30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	지각된 사회적 지지	-.32***		-.32
자기격려	→	관계중독	.27***		.27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관계중독	-.23***		-.23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부	지각된 사회적지지 →	관계중독	.13**	.05*** (.024 ~ .082)	.18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사회적지지 자기격려 →	관계중독	.18***	-.01 (-.048 ~ .033)	.17

부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관계증독으로 가는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는 자기격려,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한 관계증독에서 간접효과는 신뢰구간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로의 자기격려는 관계증독에 정의 영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그 값이 서로 상충하여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볼 수 있지만 각각의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증독 간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모 → 자기격려 → 관계증독,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모 → 지각된 사회적지지 → 관계증독을 거치는 2개의 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매개효과는 모와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가 자기격려를 거쳐 관계증독으로 가는 간접효과(95% CI : -.101 ~ -.058)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거쳐 관계증독으로 가는 간접효과(95% CI : .057 ~ .102)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개별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

			Estimate	95% CI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 자기격려	→ 관계증독	-.08	(-.101 ~ -.058)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_모	→ 지각된 사회적 지지	→ 관계증독	.07	(.057 ~ .102)

3.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남녀 대학생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를 확인한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두 집단 모두 TLI와 CFI의 값이 .90 이상과 RMSEA는 남학생 .07, 여학생 .07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 동일성은 검증되었다.

〈표 7〉 형태동일성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90% CI)
남	300.49	110	.949	.963	.070	.060 ~ .079
여	390.08	110	.935	.954	.079	.070 ~ .087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모수치들은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요인계수가 집단 간 동일하다고 제한시킨 측정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기저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Delta\chi^2$	Δdf	TLI	CFI	RMSEA(90% CI)	판정
기저모형	697.25	220			.95	.96	.05(.049~.058)	
완전측정동일성모형	723.46	232	26.21	12	.95	.96	.05(.048~.057)	기각
부분측정동일성모형	712.87	229	15.62	9	.95	.96	.05(.048~.057)	채택

완전측정 동일성 모형은 측정변수에서 잠재변수로 가는 경로를 제약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자유도가 기저모형보다 12가 증가하였다. 자유도가 12일 때 유의수준 .05에서의 임계치는 21.02이며, $\Delta\chi^2$ 값 26.21이 21.21보다 크기 때문에 두 집단의 측정요인계수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완전측정 동일성의 가정은 기각되었다. 이에 부분 측정 동일성을 가정한 결과, 기저모형과 부분 측정 동일성 모형을 비교해 보면 자유도가 기저모형보다 9가 증가하였다. 자유도 9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는 16.92, $\Delta\chi^2$ 값 15.62가 16.92보다 작게 나타나 두 집단의 측정계수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TLI=.95, CFI=.96, RMSEA=.05로 높게 나타나 동일성의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다.

구조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경로계수 간 차이가 적은 경로부터 순차적으로 동일화 제약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구조모형의 동일성은 모두 채택되어 집단 간 잠재변수들 간 경로계수가 동일한 구조는 성립되었다.

〈표 9〉 구조모형의 동일성 적합도 지수

	χ^2	df	$\Delta\chi^2$	Δ df	TLI	CFI	RMSEA 90% CI	판정
부분측정동일성	712.87	229	15.62	9	.95	.96	.05 (.048~.057)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1) 초기 대상관계 모→자기격려	712.88	230	.01	1	.95	.96	.05 (.048~.057)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2) 초기 대상관계 모→자기격려 초기 대상관계 부→관계증독	713.14	231	.26	1	.95	.96	.05 (.048~.056)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3) 초기 대상관계 모→자기격려 초기 대상관계 부→관계증독 초기 대상관계 모→사회적 지지	713.44	232	.30	1	.95	.96	.05 (.048~.056)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4) 초기 대상관계 모→자기격려 초기 대상관계 부→관계증독 초기 대상관계 모→사회적 지지 초기 대상관계 모→관계증독	714.04	233	.59	1	.95	.96	.05 (.048~.056)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5) 초기 대상관계 모→자기격려 초기 대상관계 부→관계증독 초기 대상관계 모→사회적 지지 초기 대상관계→관계증독 초기 대상관계 부→사회적 지지	716.47	234	2.44	1	.95	.96	.05 (.047~.056)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6) 초기 대상관계 모→자기격려 초기 대상관계 부→관계증독 초기 대상관계 모→사회적 지지 초기 대상관계 모→관계증독 초기 대상관계 부→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관계증독	719.27	235	2.80	1	.95	.96	.05 (.047~.056)	채택
구조 동일성 모형(7) 초기 대상관계 모→자기격려 초기 대상관계 부→관계증독 초기 대상관계 모→사회적 지지 초기 대상관계 모→관계증독 초기 대상관계 부→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관계증독 자기격려→관계증독	720.56	236	1.29	1	.95	.96	.05 (.047~.056)	채택

IV.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재학 중인 대학생 771명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 자기격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관계중독 간 영향관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부모와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는 관계중독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초기의 부모와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 경험은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의 관계중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초기의 부모경험이 부정적일수록 대인관계 질은 저하된다는 Wang, Doan, Song(2010)와 Gregory, Landau, McCloskey(2011)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기 또는 이후관계의 경험은 생애초기 부모와의 관계인식에서 유의성을 제시한 Mussen 외(1990)와 장안나, 노안영, 및 임수진(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어린 시절 양육자, 양육환경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이후에서도 관계에 집착하며(한진주, 2007), 청소년기(우상우, 2012)는 물론 성인초기의 대학생활에도 중독성향을 보인다. 관계중독의 내담자는 초기 대상자와 관계를 탐색하여 개선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는 자기격려를 매개로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모와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Perry & Bussey(1984)가 제시한 어머니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 아버지의 애착정도에서 영아와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한 Paterson(1994)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어머니보다 낮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은 어머니가 양육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이현미, 1996) 그 역할이 주요해진다.

자기격려는 초기대상관계의 안정애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긍정적 변수라는 선행연구(김경희, 2009; 이미라, 2010; 이은수, 2011)결과에도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 간 매개역할은 다르게 나타난다. 낮은 자존감(박연주, 2008)은 자기격려의 질을 가볍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격려 점수가 높다하여도 관계중독 성향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른 행동적 자기격려는 스스로 언어순화 능력을 인정하는 등 자신을 관찮은 사람으로 인지하여 대인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다혜, 2010). 하지만 자기애적 관계중독(김이슬, 2014)은 행동적 자기격려가 긍정적인 정서조절방법임에도 불

구하고 그 영향은 미비하다(허지애, 2015).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김희숙, 2014), 적극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시도하는 등 관계중독을 완화시켜 준다는 이지원, 이기학(2014)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중독을 겪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의 가치를 외부로부터 찾으려 한다. 피상적인 관계맺음으로 오히려 감정조절에 실패할 성향이 높기 때문에(이계선, 2012), 내면의 불안 정서를 확장시켜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김희숙, 2014).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중독 성향의 내담자는 상담장면에서 신뢰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부·모와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 간 지각된 사회적지지 매개효과에서 부/모의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 경험은 사회적지지에서 낮게 지각한다. 개인의 애착정도는 사회적 지지에서 차이가 있다는 Blain, Thompson & Whiffen(1993)연구와 안정애착은 지지관계에서 긍정은 불안을 부정한다는 Vaux(1993)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김광웅, 조미영(1999)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수준은 수행불안, 상황불안, 문제행동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지지 수준은 불안정서와 밀접한 결과로 불안정서(한진주, 2007), 대인불안이 높다는 신노라, 안창일(2004)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초기 대상관계 경험은 부정적으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집착한다(이경희, 2001). 가족과 친구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감을 찾게 해준다.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대인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부/모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초기 대상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믿음은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넷째,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와 관계중독 간 자기격려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남·녀간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관계중독은 성별로 구분하기보다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격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했을 때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적인 표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는 성인기 관계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적 동기에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격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지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관계중독에 벗어 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중독은 애착과 관련되어 초기 대상자의 관계중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들

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관계중독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형성된 대상의 표상은 이후 관계에서도 자기격려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한 관계중독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셋째,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격려가 적응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수로 생각하지만 중독성향자들은 부정적인 요인을 발견하였다. 넷째, 자기격려는 전체적으로 측정하기보다 행동적 자기격려와 인지적, 정서적 자기격려로 세분하였을 때, 심도 있게 이해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상담과정에서 관계중독 내담자를 돕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초기 대상관계 탐색은 안정적인 표본대상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학력이나 증상의 심각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기격려 능력과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일반인 집단과 관계중독이 높은 집단을 구분해서 확인한다면 매개효과와 영향력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항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을 어린 시절경험의 회상은 현재시점에서 왜곡되거나 피험자의 피로도를 상승시켜 부정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초기 대상관계 측정에서 간편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셋째, 행동적인 자기격려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수준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과의 관계중독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계중독 외,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연구함으로써 자기격려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고영남(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 연구, 16(2), 111-131.
- 고용노동부(2015).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집, 아빠의 육아휴직, 자료실.
- 기채영, 홍경자 (2008). 아동용 자기격려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2), 46-69.
- 김경호(2012). 부모애착과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7), 51-77.
- 김경희(2009). 진로상담: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933-345.
- 김광웅(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13(12), 1-19.
- 김미란(2006). 아德勒의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아 (2005). J. A. Comenius의 유아와 어머니 이해의 현대적 해석 :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완석, 장미선(2005). 2005학년도 재학생 실태 및 대학생활 적응 조사보고서. 아주대학교 생활 상담센터.
- 김이슬(2014).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관계중독과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슬, 권혁철(2015).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관계중독과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매개효과 재확인연구, 22(3), 517-530.
- 김정은(2007). 상담자 애착유형과 심리적 불편감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효능감, 정서적 자각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경(2006). 아德勒 아동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필진(2007). 아德勒의 사회적 관심과 상담. 서울: 학지사.
- 김현주(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 :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택(2009).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숙(2014). 불안정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 혼자 있는 능력의 매개 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 정민(2007). 자기격려-낙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75-692.
- 문수경(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0(3), 105-125.
- 박경희(2004). 유아의 자기통제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초기 대상관계 유형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란, 이지민(2012). 남녀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9(2), 5-20.
- 박구연(2002). 가족 기능과 자아개념이 고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주(2008). 성인의 애착과 낮은 자존감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2009). 고등학생의 자기격려-낙담과 자아 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04). 여고생의 애착이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희정(2009).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 여성 심리학회지, 14(1), 67-91.
- 백승진(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명확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경희(2004). 학업성취 수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장애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선진(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요인의 인관적 관계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연희(2008).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관계: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49-64.
- 손향숙(2005). 집단 따돌림 지속의 결정요인 : 피해 아동의 대처 방식, 사회적지지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2(3), 223-244.

- 송다혜(2010). 아동의 자기격려가 정서 인식·표현과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안창일(2004). 성인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 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3(4), 949-968.
- 오승환(1990). 도시빈민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185-204.
- 우상우(2014). 관계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론적 모형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란(2006). 성인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외숙, 박경(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 대학생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 이경희(2001).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선 (2013). 성인애착과 관계중독의 관계 : 자기대상욕구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201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피드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격려,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통제적 양육행동 : 5개국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31(2), 45-76.
- 이예은(2012).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수(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격려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2011). 우울증 유형에 따른 대상관계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민(2008). 담임교사의 사회적 지지도와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 효능감 간의

-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 이기학(2014). 불안정애착 및 심리적 고통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65-95.
- 이현미(1996).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 최대진 (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역할. 한국초등교육학회, 20(1), 23-41.
- 임정화, 전종설(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69-190.
- 장성숙(2004). 학업성취 수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특수학급 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16(3), 449.
- 장안나, 노안영, 임수진(2008). 학교상당 : 지각된 초기 대상관계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727-737.
- 전효정(2006).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애착유형과 심리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13(3), 137-159.
- 조미영(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아동이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영희(2002). 부모 자녀 애착 및 부모의 컴퓨터게임에 대한 태도, 자기통제력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숙(2006). 비합리적 신념,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진주(2007). 어린 시절 경험과 관계중독의 패턴연구 - 에니어그램과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 에니어그램 연구, 14(2), 135-161.
- 허지애(2015). 자기격려와 지각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6 : 구조방정식모형 초급. S&M 리서치그룹.
- 홍애순(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학교 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보민주(2010). 사회적 지지가 취업기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jamin, L. S. (2000). SASB Intrex user's manual for short, medium and long form questionnaires. University of Utah.
- Blain, M. D., Thompson, J. M., & Whiffen, V. E.(1993). Attach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Late Adolescence: The Interaction Between Working Models of Self and Oth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8(2), 226-241.
- Bradshaw, J.(2005),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Deerfield Beach, FL: Health Communications, Inc.
- Clarke-Stewart, A.(1982; 2nd edition 1993). *Dayca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agley, C. J., Campbell, F. L., Kulic, R. K., & Dagley, L. P.(1999), “Identification of subscales and analysis of reliability of an encouragement scale for children”,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5, 355-364.
- Dreikrus, R., & Soltz, V.(1964), *Children: the challenge*, NY: Hawthorn books, INC.
- Fisher, H.(2006), “*Broken hearts : The nature and risks of romantic rejections*”, In A. C. Crouter & A. Booth(Eds.) : *Romance and sex in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 risks and opportunities*, 3-28, Mahwah,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eenberg, J. R., & Mitchel, S. A.(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1999).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 Gregory, E., Landau, B. & McCloskey, M.(2011). Representation of object orientation in children: Evidence from mirror-image confusions. *Visual Cognition*, 19(8), 1035-1062.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 Addison-Wesley.
- Kerns. K. A., & Barth. J.(1995). Parent-child attachment and physical play: Convergence across componen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heir relations to peer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243-260.
- Lamb, M. E., Hwang, C. P., Frodi, A., & Frodi. M.(1982), “Security of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 to sociability with strangers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wedish famil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 355-367.

Larson, R. W, Clore, G. L, & Wood, G. A (1999). “*The emotions of romantic relationships: Do they wreak havoc on adolescents?*”. In W. Fuman, B. Brown, & C. Feiring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19-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naster, G. J. & Corsini, R. J.(1982), *Individual psychology: theory and practice*, Itasca. IL: Peacock.

Martin, G.(1990). *When good things become addictions*. Wheaton, IL: Victor Books.

Mussen, P., H., Conger, J., J., Kangan, J. & Huston, A., C.(1984; 7th edition 199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Collins Publishers.

Nemeroff, R. K.(1999). *Stress, Social,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late life: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attachment*. Columbia University Ph Dissertation.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iante, R. C., Nimetz, S. L. & Bennett, E.(1997). Mother-child relationships,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outcome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3), 263-280.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e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usan P.(2011). *Addiction to Love*. New York.: Random house, Inc.

Vardy, Y.(2011). *the experience of alonenes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D Clin, Psy, Thesis University of Wollongong)

Vaux,(1993), “Support network characteristic associated with support satisfaction and perceived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3),

245-265.

- Wallace, J. L, Vaux, A.(1993). Social support network orient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354-365.
- Wang, Q., Doan, S. N. & Song, Q.(2010). Talking about internal states in mother-child reminiscing influences children's self-representations: A cross-cultural study. *Cognitive Development. 25*(4), 380-393.
- Weiss, R., & Schneider, J.(2006). *Untangling the web: Sex, porn, and fantasy obsession in the internet age*. New York, NY : Alyson Books.
- Wolfe, J. L.(2000),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ompulsive sex/love behavior.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8*(4), 235-246.

〈Abstract〉

The Influence of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on Relationship Addiction - Mediating Effect of Self-Encourage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

Ahn, Myung-Rahn · Hong, Hye-Young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between the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and the relationship addiction. For the study subject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of father and mother, self-encourage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relationship addiction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targeting the 771 college students who were attending universities in Gyeonggi-do, Gyeongsang-do, Gangwon-do, Chungcheong-do and Jeolla-do.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etc, were conducted an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nfluence of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on the relationship addiction, after performing the verification by separating the father and mother, both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of father and mother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addiction. Second, as a result of performing verification by separating the father and mother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between the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and relationship addiction, the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of father was shown to affect the relationship addiction using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In addition, the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of mother was shown to affect the relationship addiction using the self-encourage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ccording to these study subjects and methods, this study has analyzed that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affect the relationship addiction and that self-encourage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s an important mediator between the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and relationship addi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as proposed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with future directions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on the academic performance related to the practice.

Key words : negative initial object relations, self-encourage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relationship addiction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 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6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는 연2회 발간(2월 05일, 8월 31일)하고 있다.

차. 부칙 : 본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로 시행한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중고딕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진하게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심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 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 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인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 학위명.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 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 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 = 2.71$, $t = 4.52$).
-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 < .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 = .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심리,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 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결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 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최광현(한세대학교)
편집위원 : 김은연(명지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통합치료연구 제8권 제1호

2016년 8월 31일 인쇄
2016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 선우현 (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경상관 4716호
Tel: 02-300-0881 / E-mail: ksit@ksit.or.kr
인쇄처: 동문사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